

LUX HUMANITAS

2012 SPECIAL ISSUE

KYUNG HEE UNIVERSITY NEWSLETTER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 추모 특집

02 弔詩

지금은 천국에 목련화가 피어나는 시간

05 '학문과 평화'의 스승, 영원히 잠들다

06 미원 조영식 박사의 생애

교육자 조영식

11 피난지 부산에서 경희의 초석을 다지다

14 '100년 후 경희'를 위한 마스터플랜

16 종합대학교 승격과 '경희 학풍' 정착

18 경희학원 설립, 일관교육체제 구축

20 세계대학총장회(IUP) 서울대회 유치

22 '목련'과 '웃는 사자' 경희의 상징으로 제정

23 경희의료원 개원과 '제3의학' 창안

25 국제학술회의 개최 경희의 국제화 앞당겨

26 정치적 혼란 극복, 교육의 바른 길 걸어

28 '세계적 캠퍼스' 목표로 국제캠퍼스 건설

30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 우뚝 선 경희

사상가 조영식

33 '문화세계 창조' 사상과 잘살기운동

36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밝은사회운동'

38 유토피아 사상과 '지구공동사회' 건설

평화운동가 조영식

41 핵전쟁 위기 막은 '세계평화의 날'

43 평화복지대학원,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수상

44 세계평화대백과사전 세계 최초로 발간

45 1999 서울NGO세계대회 개최

47 네오르네상스 운동과 경희의 미래

Lux HUMANITAS 룩스 후마니타스

라틴어로 '인류애를 향한 빛'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경희의 창학이념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목련화가 피어나는 시간

정호승(시인)

지금은 천국에 목련화가 피어나는 시간
목련화가 피어나 천국이 아름다운 시간
지금은 조영식 학원장님이 작사하신 노래 목련화
‘오, 내 사랑 목련화야’를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합창하는 시간
본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들려주시던
목련화 그 노래 듣던 화창한 봄날 옛그제 같은데
이제 그 노래 천국에서 일제히 울려 퍼지니 학원장님 이 어인 일이지옵니까
저희들은 지금 ‘문화세계의 창조’ 교시탑 앞에 다들 모여
학원장님이 다시 백목련으로 피어나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더는 백목련으로 피어나지 않으시려는 것이옵니까
아니 되웁니다 그러실 수는 없사웁니다
백목련이 아름다운 것은 학원장님의 그 온화한 미소를 닮았기 때문인데
백목련이 순결한 것은 학원장님의 전생애가 순결했기 때문인데
이제 어디에서 그런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관 앞 돌사자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고향산 나뭇가지 하나하나마다 통곡의 잎이 떨어집니다
하늘 날던 새들도 모두 땅에 떨어져 흐느낍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교육의 선구자이셨습니다
펼럭이는 평화의 깃발이자 배달의 얼이셨습니다
언제나 이 땅의 새로운 길이셨습니다
교육의 길 위에 진리와 사랑과 평화의 길을 만드신 길 위의 길이셨습니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교육철학 위에
창의적 노력과 진취적 기상과 건설적 협동의 경희정신을 꽃피우시고
인류 공동체 정신의 나아갈 길을 만드신 길 위의 길이셨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다시 길이 되어
스스로 봄길이 되어 아, 한없이 걸어가는 美源 조영식 학원장님!
‘생각하는 자 천하를 얻는다’는 그 가르침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
‘인류사회 재건하여 문화세계 창조하자’고 하신 그 고귀한 말씀

‘인간은 기획하고 하늘은 裁定한다’고 하신 그 깨달음
백두산 천지에서 ‘하나가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그 눈물의 기도
‘평화는 凱旋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존귀한 말씀
지금 저희들의 가슴 속에 해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저희들도 언제나 해 뜨는 곳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진실의 길에 씨를 뿌리고 진리의 바위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당신의 평생이 세우신 학문과 평화의 전당 경희대학교를
세계 속의 대학으로 더욱 성장 발전시키겠습니다
아, 아직도 학원장님께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를 집필하시던
신념의 신새벽은 밝아오는데
‘밝은 사회 운동’에 앞장서시던 학원장님의 부지런한 발소리는 들려오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던 학원장님의 소망의 기도소리는 들려오는데
아, 학원장님! 저희들을 남겨 두고 지금 홀로 어디로 포포히 떠나시옵니까
언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말씀도 없이
언제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없이 지금 홀로 외로이 어디로 가시옵니까
우리들의 사랑이셨던, 우리들의 아름다움이셨던, 우리들의 선도자이셨던,
우리들의 전부이셨던 학원장님!
이제 기쁜 얼굴로 학원장님에 의해 제정된 유엔 세계평화의 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대학총장회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남북한 일천만 이산가족이 모두 모여 두둥실 춤을 추며 찾아뵙겠습니다
백목련 활짝 피는 봄날에 회기동 산 1번지 교시탑 앞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온유한 미소를 띠며 교시탑 앞에 또 한 그루의 백목련으로서 계실
우리들의 영원한 학원장님, 사랑하는 美源 조영식 박사님!
저희에게 부디 사랑의 손길 거두지 마소서
천국에 설립하신 대학에 저희들이 입학할 때까지
평화의 영면 누리소서
영면의 기쁨 누리소서



‘학문과 평화’의 스승, 영원히 잠들다

미원 조영식 박사 91세를 일기로 2012년 2월 18일 별세
2월 23일 영결식, 경희학원 학원장으로 장례식 엄수

조영식 경희대학교 설립자 겸 경희학원 학원장이 지난 2012년 2월 18일 오후 5시 13분 경희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는 1921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명예법학박사 등 34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한 조영식 박사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이념 아래 경희대학교를 ‘학문과 평화’의 요람으로 성장시켰다. 1961년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일관교육체제를 확립하고 경희학원을 설립했다. 경희의료원 설립과 함께 한의학의 부활시켜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을 접목한 ‘제3의학’을 창안했다.

‘문화세계의 창조’ 이념 아래 교육·연구·실천의 학풍 확립

조영식 박사는 대학의 기본 사명인 교육과 연구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경희대학교가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다. 그와 동시에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 대학의 공적 책임을 실천해왔다.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은 그에 의해 확립된 경희 고유의 학풍이다.

조영식 박사는 1950년대 중반부터 전쟁의 폐허 위에서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잘살기운동을 펼치며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다. 1970년대 들어서는 시야를 한반도 너머로 확장시켜 밝은사회운동, 인류사회재건운동을 제창하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평화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교육을 통해 세계평화를 구현한 20세기 최초의 교육자이자 사상가, 평화운동가로 평가받고 있다.

UN 세계평화의 날 제정에 선도적 역할

조영식 박사는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설을 주도해 전 세계 지성들과 인류의 미래를 모색했다. 세계대학총장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영구명예회장에 추대됐다. 이외에도 세계대학총장회 산하 평화협의회(HCP) 의장, 밝은사회국제클럽(GCS International) 국제본부 총재,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총재, 오토피아평화재단 총재, 통일고문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세계인류학자대회에서 ‘인류 최고 영예의 장’을 수훈했다. 이밖에도 할마솔트상, 세계대학총장회 세계평화대상, UN 평화훈장, 아인슈타인 평화상, 비폭력을 위한 마하트마 간디상, 대한민국 정부 국민훈장 무

궁화장, 만해평화상 등 67개의 상훈을 받았다.

조영식 박사는 1981년 UN이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그해 7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에서 이를 제안했으며, 제36차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했다. ‘일천만 이산가족 재회 촉구를 위한 범세계 서명운동’을 전개해 153개국 21,002,192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세계기네스협회가 인증하는 최다 국가·최다 서명 세계 기록이었다.

조영식 박사는 한·미간의 우호 증진에도 기여했다. 1978년 미국 몬태나 주정부는 고인의 제안으로 ‘한국 우정의 주간’을 선포했다.

1989년 8월 미국 의회는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며 국회의사당에 조영식 학원장 이름으로 성조기를 게양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팔레르모대학은 ‘조영식 평화강좌’ 개설과 함께 ‘조영식 평화전당’을 헌정했으며,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도 ‘조영식 평화강당’을 헌정했다. 독립국가연합(CIS) 학술원은 ‘제3 민주혁명’ 이론을 창시한 공로를 인정해 조영식 박사를 정회원으로 선정했다.

서울·국제·광릉 캠퍼스에 빈소·분향소 마련

저서로는 <민주주의의 자유론> <문화세계의 창조>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 <인류사회의 재건> <세계평화: 그 위대한 소명> <Pax UN을 통한 세계평화> <세계평화대백과사전> <지구촌의 평화> <동양의학대사전> <아름답고 풍요하고 보람있는 사회>(연설문집, 전5권)을 비롯해 51권이 있다.

장례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김용철) 학원장으로 치러지며, 빈소 및 분향소는 경희의료원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로비, 광릉캠퍼스 대회의실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2012년 2월 23일 오전 9시에 거행되며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선영이다.

유족으로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 조인원 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등 2남과 조여원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교수, 조미연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 등 2녀, 사위 독운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구자명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회장이 있다.

미원 조영식 박사의 생애

1921년 11월 22일~2012년 2월 18일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명예법학박사
 - 필리핀 마닐라 시립대학교 명예인문학박사
 - 부산 국립대학교 명예법학박사
 -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교 명예박사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명예인문학박사
 - 일본대학교 명예상학박사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명예평화철학박사
 - 브라질 매킨지대학교 명예박사
 - 일본 소카대학교 명예법학박사
- 34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함



경력

- 경희대학교 설립자 겸 학원장
- 세계대학총장회(IAUP) 설립
- 세계대학총장회 영구명예회장
- 세계대학총장회 산하 평화협의회(HCP) 의장
-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총재
- 국제평화연구소 총재
- 밝은사회문제연구소 총재
- 밝은사회국제클럽(GCS International) 국제본부 총재
- 오토피아평화재단 총재

수상 및 수훈

- 인류 최고영예의 장
- 함마숄트상
- 세계대학총장회 세계평화대상
- 세계대학총장회 세계학술대상
- UN 평화훈장
- 스웨덴 왕실훈장
- 아인슈타인 평화상
- 존 듀이 명예훈장
- 이란 왕실훈장
- 필리핀 정부 라칸 오브 시카투나 훈장
- 중화민국 정부 최고 화하훈장
- 파라과이 정부 국가공적대훈장
- UN 평화 공적 특별상
- 비폭력을 위한 마하트마 간디상
- 국제교육자협회 새천년평화교육상
- 대한민국 정부 국민훈장 무궁화장





업적

- UN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최초로 제안
- 한국 일천만 이산가족 재회 촉구를 위한 범세계 서명운동 전개 (153개국 21,002,192명 서명, 세계기네스협회 인증 최다국가 · 최다서명 세계기록)
- 한 · 미 우호 증진에 대한 조영식 박사의 공을 인정해 미국 몬테나 주정부가 '한국 우정의 달' 선포, 알래스카 주정부가 '한국 · 알래스카 교육 협력 주간' 선포
- 한 · 중 학술 및 문화교류 증진에 대한 조영식 박사의 공헌을 인정해 중화민국 문화대학교가 '경희당'을 헌당
-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1989년 8월 10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조영식 박사 이름으로 성조기 게양
- 평화 연구에 대한 조영식 박사의 공을 인정해 아르헨티나 팔레르모대학이 '조영식 평화강좌'를 개설하고 '조영식 평화전당' 헌당
- 세계평화에 대한 조영식 박사의 공을 인정해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이 '조영식 평화강당'을 헌당
- 몽골 과학원 명예회원으로 피선
- 조영식 박사가 개발한 'Pax UN' 이론이 UN의 평화정책에 반영됨
- '제3 민주혁명' 이론을 개발한 공을 인정받아 독립국가연합(CIS) 학술원 정회원으로 피선
- 국제인명사전협회로부터 20세기의 인물상(세계평화 부문) 수상(1세기에 1회 수여)위를 포함해 17가지 업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전 세계로부터 총 100여 개의 상과 훈장을 수여



저서

- 민주주의 자유론(1948)
- 문화세계의 창조(1951)
- 우리도 잘 살 수 있다(1963)
-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의 구현(1971)
- 인류사회의 재건(1975)
- 유토피아(1979)
- 세계평화: 그 위대한 소명
- Pax UN을 통한 세계평화
- 세계평화대백과사전(1986, 편저)
- 지구촌의 평화(1987)
- 동양의학대사전(1999, 편저)
- 하늘의 명상(1981, 시집)

- 조국이어, 겨레여, 인류여(1994, 시집)
이밖에 40여 권의 저서와 시집 출간하고 120여 편의
논문을 국내 및 국제회의에서 발표했으며 '목련화' 외
30여 곡의 노래 작시

주요 국제회의 활동

-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기념하는 연례 국제평화회의 주관(1982~)
- 모스크바 2+4(미국, 소련, 중국, 일본, 한국, 북한) 국제회의 개최(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국제회의)
- GCS International 연차대회 주관 개최
- 한국 일천만 이산가족 재회 축구 대결의대회 및 학술세미나 주관 개최(1983~2000)
위의 국제회의를 포함해 75개의 국제회의를 주재했으며 27개 국내 및 국제회의에 참가

교육의 선구자 조영식 박사

1950년부터 3년 동안 계속된 6·25 전쟁은 한반도를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 폐허 위에 조영식 박사는 경희의 터전을 세웠다.

1951년, 그의 나이 30세 때였다.

그가 피난지 부산에서 인수한 신흥초급대학은 3개 학과에

모집정원이 150명에 불과했다. 정식 인가조차 얻지 못한,

가진 것이라곤 은행빛과 이름뿐인 ‘천막 학교’였다.

그로부터 60년, 경희는 국내 종합대학 5위의 대학으로 성장했다.

세계대학 245위, 아시아대학 42위에 올라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 60여 년 동안 경희는 ‘경이로운 성취’를 이뤘다.

이는 교육을 통해 나라를 부흥시키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조영식 박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이룩해낸 결과다.

경희의 역사와 함께해온 조영식 박사의 생애를 되돌아본다.

피난지 부산에서 경희의 초석을 다지다

1951년 2년제 신흥초급대학 인수, 1년 7개월 만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
교사 건물 화재로 위기 맞았으나 강인한 도전정신으로 학교 재건



경희대학교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를 새겨넣은 교시탑. 1955년 7월 24일 건립됐다.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에 들어 서면 약 150미터 전방에 잘 가꾸어진 숲과 어우러진 탑이 하나 세워져 있다. 경희대학교 창학이념을 새겨 넣은 교시탑(校是塔)이다.

1955년 7월 24일 건립된 이 탑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미터 높이의 교시탑은 미원 조영식 박사의 삶과 경희의 역사를 상징하듯이 우뚝 솟아 있다.

미원 조영식 박사가 교육에 뜻을 품고 피난지 부산에서 신흥초급대학을 인수했을 때 나이는 불과 30세였다. 당시 그는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번영과 민주주의 발전을 꿈꾸던 정치 지망생이었다.

인생의 진로를 바꿔 교육자의 길을 택한 뒤 그는 사상가로서, 실천가로서, 평화운동가로서 다양한 삶의 궤적을 밟아왔다. 그 바탕에는 일관된 신념이 자리 잡고 있

다. 그것은 경희대학교의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에 요약돼 있다.

목사의 길 꿈꾸었던 소년 조영식

1921년 11월 22일 금 산지로 유명한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난 조영식의 어린적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일제의 수탈과 억압에 신음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는 우리 민족이 신의 보살핌 아래 구원받기를 소망했다.

광산을 경영하는 부친 조만덕(趙萬德)으로부터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소년 조영식은 늘 책을 읽고 사색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몸이 허약해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았다.

목회 활동을 위해서는 강건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싱과 체조, 달리기 등으

로 신체를 단련했다. 소년 조영식은 어느덧 지·덕·체를 겸비한 스포츠맨으로 성장했다.

해방 전, 목사의 길을 꿈꾸며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체육대학에 입학했다. 1943년 10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잠시 귀국해 평생의 반려 오정명과 결혼했다. 태평양전쟁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신흥생활 3개월째인 1944년 1월 그는 평양에 주둔한 일본군 48공병부대에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됐다.

"일제의 총알받이가 될 수 없다"

훈련소로 끌려간 그는 '일제의 총알받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훈련소 탈출을 결심하고 조선인 학도병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생사를 건 모험이었다.

그러나 거사 직전 정보가 유출됐다. 악명 높은 일본군 헌병대에 끌려가 모진 고



1953년 3월 신축된 부산 동대신동 교사(왼쪽). 그 전까지 사용됐던 동광동 교사는 1952년 12월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지 40일 만에 화재로 전소됐다.

문을 받아야 했다. 그것이 1945년 1월의 ‘평양 학도병 의거 모의사건’이다.

약 1개월간의 취조와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은 청년 조영식의 인생관, 민족관, 세계관에 변화를 가져왔다. 언제 전쟁터로 끌려갈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그는 함께 수감된 동지들에게 제안했다.

“비록 혹독한 영장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후시나 살아남을지도 모르니 이렇게 무의미하게 소일만 하지 말고 무언가 미래를 위해 일할 준비를 하자.”

입을 책이 한 권도 없었으므로 그 ‘준비’는 각자가 배운 지식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토론식 학습으로 진행됐다.

훗날 조영식 박사는 “우주와 삼라만상의 변화 속에서 인생을 명상하고 사색하는 가운데, 그 통합과 조화라는 삼차원적 우주관, 유기적 통일체관의 근원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 시절을 회고했다. ‘미원’이라는 아호 역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며 근원을 향해 조화롭게 발전하는 토론 학습 경험에서 비롯됐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정치계에 입문

1945년 8월 15일, 전 민족이 염원하던 해방의 날을 맞았다. 그러나 38선 이남은 미군이, 북한 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어 조국의 독립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해방 이듬해 청년 조영식은 고향을 등지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다. 남이

건 북이건 조국과 민족이 처한 현실은 참담했다.

국민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농업 기반은 일제의 수탈에 의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져 있었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45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문맹률이 73.5%에 달했다.

1948년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정부가 수립됐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우익과 좌익의 충돌은 전국적 폭력 사태를 가져왔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계층인 까닭에 청년 조영식은 체육교사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정된 교사 생활을 내려놓고 서울대 법과대학에 편입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기초한다’는 생각에서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법대 동기생 문인구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재학 시절 ‘1만 시간 독서 계획’을 세울 정도로 공부에 열심이었다.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는 독서량이었다.

1948년 법학도 조영식은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첫 저서 <민주주의 자유론>을 펴냈다.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에 공헌하겠다는 그의 포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1950년 여름 6·25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그는 정계에

입문해 국회 원내교섭단체 중 하나인 ‘공화민정회’ 조사국장 겸 법제사법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과 달리 현실의 정치는 청년 조영식에게 실망을 안겨 줄 뿐이었다. 그는 극심한 국정 혼란과 정치가들의 저열함, 혼탁한 정치문화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는 좋은 정치로 국민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쟁 중에 교육사업이 제 정신이나?”

그러던 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해달라는 것이었다. 제안자는 부산으로 피난해 있던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이었다.

신홍초급대학은 1946년 설립된 배영대학관과 1947년 설립된 신홍전문학관이 합병해 1949년 가인가로 설립된 2년제 대학이었다. 영어과, 중국어과, 체육과 등 3개 학과에 모집 정원은 각 50명씩 총 150명에 불과했다.

신홍초급대학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어려웠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한 뒤에는 학교 문을 열 형편이 안 돼 졸업생조차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물도 대지도 없는 ‘천막 대학’이 가진 것이ら곤 1,500만 원의 은행 빛과 밀린 월급뿐이었다.

학교를 인수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다.



부산 동대신동 교사 정문에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교훈을 써넣었다.

주변에서는 “전쟁 중에 교육사업이라니 무슨 소리냐, 정신이 있느냐”며 극구 만류했다.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생각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시영 선생이 세 번째로 사람을 보내왔을 때, 정치 지도자의 삼고초려에 감복해 결단을 내렸다.

2년제 초급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생각의 과정은 길었지만 실천은 빨랐다. 조영식 박사는 학교를 인수한 지 2주일 만에 부산역 바로 맞은편 동광동 5가 3번지 언덕 위에 학교 부지를 마련했다. 사재 1,800만 원을 들여 본부 건물 1동과 5개의 강의실을 갖춘 교사 건물 2동을 신축했다.

그해 8월 20일 개강할 당시의 학생은 새로 모집한 74명과 전쟁 전에 입학한 48명을 합해 총 122명이었다.

학생 수는 적었지만 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열의는 높았다. 조영식 박사는 1인 3역을 도맡았다. 재단이사장과 학장직을 겸임하면서 재정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는 한편 교직원들과 토론하며 행정 합리화 방안을 모색했다. 직접 강단에 올라 ‘민주주의론’을 강의했다.

학교가 안정되자 조영식 박사는 재단을 확충하고 문교부에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1952년 2월 3일 문교부로부터 초급대학 정식 인가를 받았다. 그러자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한 학기가 지날 무렵 학생 수는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

해 12월 9일에는 4년제 대학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다’(教育立國)는 조영식 박사의 꿈은 더 크고 담대했다. 4년제 대학 승격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때 이미 다양한 학문이 소통하는 종합대학 체제를 갖추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했다.

종합대학 설립의 꿈

그는 백의중군의 각오를 다졌다. 재력가들을 만나 자신의 포부와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스스로 재단이사장직과 학장직을 내놓고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이사진이 새로 구성되고 학교 재정이 확충돼 종합대학 설립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1953년 1월 9일 예상치 못했던 화제가 발생했다. 공들여 지은 교사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지 불과 40일 만의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외부에서 끌어들인 이사장과 학장도 모두 사표를 내고 손을 뗐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신흥대학과 조영식 씨는 망했다”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조영식 박사는 좌절을 몰랐다. 또다시 이사장직과 학장직을 겸임하며 밤낮없이 학교 재건에 나섰다. 부산 동대신동 2가 87번지의 땅 700평을 구입했다. 그리고 착공 2개월 만인 3월 20일 새 교사를 건립했다.

2억 5,000만 원을 들여 새로 지은 학교에는 대강의실과 일반강의실 7개실, 도서관 1동, 본부 건물 1동이 들어섰다. 400평 크기의 운동장과 비록 규모는 작지만 아름답게 꾸민 화단도 조성됐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교훈 제정

동대신동 교사 건립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교문의 양쪽 기둥과 건널판에 폭 70센티미터의 목판 3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선명한 페인트 글씨로 교훈을 써넣었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교훈이 제정된 것은 1951년 신흥초급대학 인수 직후의 일이다. 그해 8월 20일 동광동 교사에서 첫 개강을 하면서 조영식 박사는 교육 목표와 교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본 대학은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민주주의적 처리 능력을 가진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고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교육 방침으로 정한다.”

이 같은 창학정신은 전문(前文)과 3개항의 본문으로 다듬어져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1952년 12월 9일 공포됐다. 그것이 동대신동 교사 신축과 함께 대중적 선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기억될 것은 1953년 3월 30일 첫 학위수여식이 거행됐다는 사실이다. 이날 1회 졸업생 45명이 정식으로 배출됐다.

동대신동 교사 건립은 조영식 박사 개인에게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는 위기 앞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잃기는커녕 도전정신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열정과 의지를 단련했다.

당시 그는 “불에 구우면 구울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쇠는 더 굳어지고 강해진다”는 말을 되뇌곤 했다. 이때의 경험이 서울 캠퍼스를 건설하고 오늘날 경희대학교를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게 하는 밑거름이었다.

‘100년 후 경희’를 위한 마스터플랜

서울캠퍼스 교지 30만 평 확보한 뒤 1개월 동안 고황산 오르내리며 구상
본관 석조전 등 직접 설계, 녹지 공간 많은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경희의 상징이자 심장부인 서울캠퍼스의 본관 석조전 중앙부는 1956년 7월 준공됐다. 조영식 박사는 각종 건축 서적을 독파하며 직접 건물을 설계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 간의 정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체결됐다. 전투 병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총 26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으며 3년 이상 지속된 전쟁이 멈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자 부산으로 피난해 있던 대학들은 저마다 짐을 꾸리느라 바빴다. 조영식 박사도 서울 이전을 결심했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과 달리 돌아갈 곳이 없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곳곳을 답사

조영식 박사는 폐허가 되다시피 한 서울 곳곳을 누비며 땅을 물색했다. 홍익대학교가 자리한 와우산 주변, 삼청공원, 우이동, 자하문 밖, 하월곡동 등지를 답사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부산의 동대신동 교사를 신축한 지 1년도 채 지나

지 않은 때여서 재정 압박이 극심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곳이 현재 서울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는 휘경동 천장산(고황산) 기슭이었다.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46년 청량리역 부근 미주아파트 자리에 있던 서울대 법대에서 편입시험을 볼 때 홍릉 건너편 나지막한 산에 올라 산책을 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펼쳐진 평야와 천장산(해발 144미터)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이 일대는 지금처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다. 일제시대에 남산 신궁(神宮)을 짓기 위해 석재를 채취하던 채석장이 방치돼 있었으며, 주변에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산골짜기였다. 현지를 답사한 학교 관계자들은 당연히 반대였다.

조영식 박사의 생각은 달랐다. 이곳이야

말로 경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명당’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고황산 일대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소였다. 홍릉, 회릉, 의릉 등 조선시대 왕가의 능묘가 자리 잡았다는 것은 풍수객들이 명당으로 꼽았다는 것을 반증했다.

한국 최초의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1953년 10월 12일 고황산 기슭에 30만 평의 교지를 확보한 뒤 조영식 박사는 한 달 동안 서울에 머물며 날마다 산 중턱에 올라 지세를 살피고 구상을 다듬었다. 어느 장소에 어떤 건물을 세울지, 건축 양식은 무엇으로 할지, 녹지는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캠퍼스 건설에 대한 밑그림은 그때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완성돼 있었다.

조영식 박사는 국내 대학 최초로 마스터



1956년 공중에서 촬영한 서울캠퍼스의 옛 모습(왼쪽 위)과 마스터플랜에 의한 조감도(왼쪽 아래), 오른쪽 사진은 본관 석조전 기공식.

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한 교육자이자 기획자, 설계자, 건축가였다. 어릴 때 선친으로부터 배우고 익힌 생각하는 습관, 스포츠를 통해 단련된 체력과 집념, 청년시절 옥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 독서와 사색을 통해 배양된 종합적 사고력 등이 그러한 자질과 능력의 바탕이었다.

부산에서 동대신동 교사를 지은 경험도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불과 700평 규모의 교사를 신축할 때도 그는 강의실 건물 외에 도서관을 짓고 운동장 터를 닦았다.

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한 학교시설이지만 당시만 해도 사치스럽게 여겨졌다. 하지만 조영식 박사는 비록 장서가 700여 권에 불과하고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였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독립된 도서관 건물을 세웠다.

지·덕·체의 합일을 강조해온 그에게 운동장은 아무리 재정 형편이 어려워도 빼놓을 수 없는 시설이었다. 또한 자연애호가이자 평화주의자인 그는 전쟁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미적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화단을 조성했다. 그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동대신동 교사는 고향산

을 오르내리며 구상한 마스터플랜의 원형이었다.

경희의 상징, 본관 석조전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본관 석조전 신축이었다. 높이 16.3미터, 지름 1.36미터의 원형 돌기둥 14개가 떠받치고 있는 코린트 양식의 본관 규모는 4개층, 연면적 3,800평에 달했다.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의 석조 건축물이었다. 조영식 박사는 각종 건축 서적을 독파하며 혼자 힘으로 설계도를 그렸다.

석조전은 순수 국내 기술로 지어진 석조 건물이라는 건축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덕수궁 석조전과 지금은 해체되고 사라진 중앙청 건물 등이 있었지만 그것은 각각 프랑스인과 독일인의 기술에 의한 것이었다. 조영식 박사의 진두지휘 아래 수많은 석공들이 고향산에서 채취한 화강암을 일일이 다듬어 석조전을 세웠다.

1953년 11월 조영식 박사가 교직원들에게 마스터플랜과 석조전 건축 계획을 발표했을 때 모두가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여겼다. 본관을 포함한 큰 공사에만 3억 5,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조영식 박사는 자택을 팔고 급전

을 빌리고 은행 융자를 얻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석조전 신축에 공을 들였다. 본관 건물의 중앙부는 1953년 12월 1일 착공한 지 2년 8개월 만인 1956년 7월 30일 준공됐다. 30개 강의실이 들어선 본관 석조전은 종합대학 도약을 꿈꾸는 경희의 심장부이자 상징이었다.

마스터플랜에는 12미터 높이의 아치형 정문(등용문), 동양 최대 규모의 중앙도서관, 400미터 정규 트랙을 갖춘 종합운동장과 체육대학관, 본관 앞 정원과 분수대, 최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천극장,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진 숲과 계곡과 호수 등 현재 서울캠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건축물과 자연경관 조성 계획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캠퍼스 건설이 진행되었고 1954년 봄, 예정대로 첫 학기를 개강할 수 있었다.

조영식 박사의 마스터플랜은 100년 후 미래를 내다보는 원대한 꿈의 청사진이었다. 그 같은 구상이 60년 전에, 그것도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입안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 평가된다. 현재 경희대학교는 국내에서 녹지 공간이 가장 많은 아름다운 캠퍼스로 손꼽히고 있다.

종합대학교 승격과 ‘경희 학풍’ 정착

1955년 종합대학 설립 인가 획득, 4개 단과대학 체제 갖춰
‘학생은 공부하고 교수는 연구하는’ 교육제도 확립



조영식 박사의 마스터플랜에서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도서관 건립이었다. 1968년 동양 최대 규모로 완공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15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로 이전한 이듬해 조영식 박사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한 가지 꿈을 이뤘다. 1955년 2월 28일 문교부로부터 종합대학교 설립 인가를 얻어낸 것이다. 2년제 신흥초급대학이 불과 3년 6개월 만에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정경대학, 체육대학 등 4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갖춘 종합대학교로 승격했다.

1955년 3월 1일 조영식 박사의 초대 총장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회기동 캠퍼스’ 시대가 열렸다. 마스터플랜에 의한 캠퍼스 건설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됐다. 학과 증설로 인해 1954년 1,040명이던 학생 정원도 1957년 1,568명으로 50% 이상 늘어났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영식 박사는 교수진을 대폭 보강했다. 1957년의 경우 전임교수 60명, 조교수 10명, 강사 61명이 신규 임용됐다. 또

‘학생은 공부하고 교수는 연구하는’ 학풍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확립했다. 수업시간 엄수, 강의계획서 작성, 논문 발표, 학생생활지도 등 15개 항목의 내규를 정하고 무결강 교수에 대한 표창제도를 도입했다.

창조적 대학문화의 활성화

대학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았다. 1955년 5월 1일 문예, 학술, 체육, 예능 분야에서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문화상 제도를 도입했다. 그해 5월 12일 대학신문(현재의 대학주보)을 창간해 학내 언론을 활성화했다.

1956년 10월 노천극장에서 국내 대학 축제의 효시인 대학제를 개최했다. 1957년 교내 방송국인 대학의 소리(Voice of University, VOU)를 개국하고 이듬해 3월 11일부터 정기 방송을 송출했다.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1955년 개교기념식에서 조영식 박사는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이날의 기념사에는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나의 이 대학에 대한 책임은 오직 훌륭한 대학을 건설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든 우수한 대학이 될 때까지 만단을 무릅쓰고 젊음의 정열을 쏟는 일이다.”

‘경희 탈취’ 음모사건

학교 발전의 기틀을 확립해나가고 있던 중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쳐왔다. 재단 이사진의 일부까지 가담한 세력이 학교를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들은 먼저 학생과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문리과대학장 주요섭 교수를 포섭하려고 했다. 주요섭 교수는 “조영식 박사 없이는 이 대학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일축하며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자 그들은 정보기관을 동원한 음해 공작을 시도했다. 그것이 '문화세계의 창조 필화사건'이다.

조영식 박사는 1951년 발간한 두 번째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에서 이념과 국가를 초월한 '공존공영의 평화세계'를 주창한 바 있다. 음해 세력은 이를 '공산주의와의 공존을 용인하는 불온한 사상'이라고 모함했다. 당시 남한 사회는 반공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영식 박사는 1955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무부 치안국 분실에 전격 구속됐다. 음모꾼들은 그가 구속된 사이 학교를 탈취할 계획이었다.

사회 여론이 들끓었다. 고려대학교 유진오 총장은 "5년 전에 발간된 저서를 지금에 와서 문제 삼아 형사사건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학자들은 겁이 나서 저서를 낼 수 없을 뿐더러 학문 연구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경규 국회 부의장은 "진정한 교육자의 저서 중의 한 구절을 과장 해석하여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그르치게 했다는 것보다 그를 매장하려 한 것이니 부당하다. 검찰은 조 총장이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모략자들을 무고죄로 입건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사 당국은 여론에 밀려 구속 6일 만에 조영식 박사를 석방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의 일환으로 저서 내용에 대한 감정을 학술원에 위촉하는 집념을 보였다. 학술원은 그 책에 대해 '용공 사상이 없을 뿐 아니라 반공적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 우리 민족의 앞날을 시사한 양서(良書)'라고 판정했다.

이 사건은 1957년 6월 13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재단 이사회는 음모에 가담한 이사와 교수 4명을 해임했다.

“경희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겠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2년 동안 조영식 박사는 큰 상처를 입었다. 학교 발전을 위해 영입한 이사진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

았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1958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조영식 박사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터키,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일본 등 20여 개국을 순방하며 명문대학들을 둘러보았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교육제도를 경험하며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1959년 4월 20일 그는 학생들 앞에서 해외 순방 성과와 각오를 밝혔다.

“나는 세계 여러 곳을 시찰함으로써 우리 대학을 단시일 내에 가장 훌륭한 대학으로 건설하는 방법과 자신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대학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새로운 힘을 얻었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교실 중심의 교육을 지양

하고 도서관과 학생회관 운영에 중점을 둔 산 교육을 실시할 생각이다.”

실제로 동양 최대 규모와 설비를 갖춘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1960년 10월 착공해 1968년 6월 17일 완공됐다. 현재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15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도 2011년 장서 100만 권을 돌파했다.

신흥초급대학을 인수한 지 10년째 되는 해인 1960년 3월 1일, 그동안 다져온 역량을 바탕으로 새 도약을 모색하는 상징적 조치가 취해졌다. 학교 이름을 경희대학교로 개명한 것이다.

‘경희’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영·정조 시대의 정궁(正宮) 경희궁에서 따왔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에도 걸맞은 선택이었다. 교명 변경을 계기로 경희대학교는 1960년대의 비약적 발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교시탑(위 왼쪽), 노천극장(위 오른쪽), 본관 석조전(아래) 건축 공사 모습. 노천극장은 1959년 완공됐다.

경희학원 설립, 일관교육체제 구축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전인교육·정서교육·과학교육·민주교육 실시
음악대학·의과대학·공과대학 등 대학 및 학과 증설, 비약적 발전



음악·무용·연극 공연 시설이 갖추어진 크라운관(사진). 개교 25주년 행사를 치른 크라운 콘서트홀은 1997년 내부 시설을 대폭 보강했다.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 경희 캠퍼스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본관 석조전과 체육대학관 준공에 이어, 인문·자연계열 학문과 교육의 요람이 될 문리대대학관(건평 1,471평)이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종합운동장 건설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큰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조영식 박사는 30만 평의 캠퍼스에 새로운 꿈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 그 하나는 종합학원 설립이었다. 그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경희정신으로 묶어내는 ‘일관교육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1960년 경희중·고등학교 설립이 그 시작이었다. 이듬해 경희학원이 설립되고 경희유치원과 경희초등학교, 경희초급대학이 문을 열었다.

조영식 박사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이념을 실현하려면 어릴 때부터 성년

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 고유의 철학과 정신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희의 교육 방침, 즉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실행해 경희학원이 지향하는 이상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또한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정신적 덕목으로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을 강조했다.

경희가족운동 전개

한국 유일의 종합학원 체제가 확립된 1963년 5월 18일 개교기념식에서 그는 경희가족운동을 제창했다.

“가족정신은 피차간 사랑하고, 존경하고, 협력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봉사 와 희생정신에 입각한 관용과 애타(愛他)의 정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단결과 발전은 동양 고유의 미덕인 가족정신을 살려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분열과 파쟁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협동과 애국의 정신으로 보다 더 큰 우리의 행복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경희가족의 결연은 오늘부터 경희학원에서 시작되지만, 이 가족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애국애족으로 번져 파쟁 없는 겨레, 싸우지 않는 국민이 되어 우리도 남의 나라처럼 아끼자기하게 협조하며 다정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되어 이 나라 번영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을 충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희가족운동은 배타적 또는 소극적 의미의 가족주의를 표방한 운동이 아니었다. 경희가족에서 출발해 온 겨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열린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경희가족 정신으로 새 경희 이룩하자’는 슬로건은 그

안에 '인류가족 정신으로 새로운 인류사회 건설하자'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경희가족운동은 각종 세미나, 친선경기, 가족상 시상식, 심포지엄 등 여러 형태로 펼쳐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행사는 1966년부터 4년간 개최된 '경희가족 대음악제'였다. 서울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음악제에는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경희가족 1,400명이 출연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았다.

10개 대학 37개 학과의 편제 구축

조영식 박사의 두 번째 구상은 명실상부한 종합대학 편제를 갖추는 일이었다. 경희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1960년 2월의 학과 편제는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정경대학, 체육대학 등 4개 대학 15개 학과였다. 1953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할 당시 4개 학과(법률학과, 정치학과, 문학과, 체육학과)로 출발한 것에 비하면 불과 7년 만에 놀라운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조영식 박사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종합대학이라고는 하지만 인문·사회계열에 치우쳐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영식 박사는 단과대학과 학과 증설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1965년 4월 27일의 동양외과대학 인수합병은 장차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 의학계열의 모든 단과대학을 갖춘 세계 유일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 시기 경희대학교는 6개의 단과대학을 신설했다. 음악대학(1964), 사범대학(1965), 의과대학(1966), 약학대학(1966), 산업대학(1968), 공과대학(1969) 등을 설립하며 종합대학다운 면모를 갖췄다. 입학 정원도 1950년대 말 480명에서 1960년대 말 1,205명으로 250% 증가했다.

학부의 확장과 함께 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대학원 증설도 이뤄졌다. 1954년 창설 당시 경희대 대학원은 법률학과와 영어영문학과 등 2개의 석사학위 과정으로 출발했다.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것은 1959년의 일이다. 그러던 것이 1969년 석



1960년대의 경희는 단과대학과 학과 증설로 비약적인 발전의 시기를 맞았다. 그에 따라 캠퍼스 건설 작업도 활기를 띠었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의과대학, 중앙도서관, 문리대 그리고 대운동장 입구인 선승문.

사학위 과정 17개 학과, 박사학위 과정 11개 학과로 늘어났다.

군사정부 탄압에 의한 총장직 사임

경희의 빠른 성장에 주변 사람들은 감탄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5·16 군사 쿠데타 직후 군사정부의 실력자들로 구성된 오월동지회 소속 인사들이 조영식 박사를 찾아왔다. 오월동지회 회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들은 조영식 박사가 한때 정치계에 입문해 민정동지회 사무국장으로 일한 경력, 그리고 첫 저서 <민주주의 자유론>을 통해 정치에 대한 진취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쿠데타 세력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참신한 인물을 영입할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조영식 박사의 입장은 확고했다. 더욱이 경희의 발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던 때였다. 다른 일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961년 6월, 문교부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라 조영식 박사의 총장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해왔다. 조영식 박사는 문교부장관을 만나 "총장 승인을 취소하는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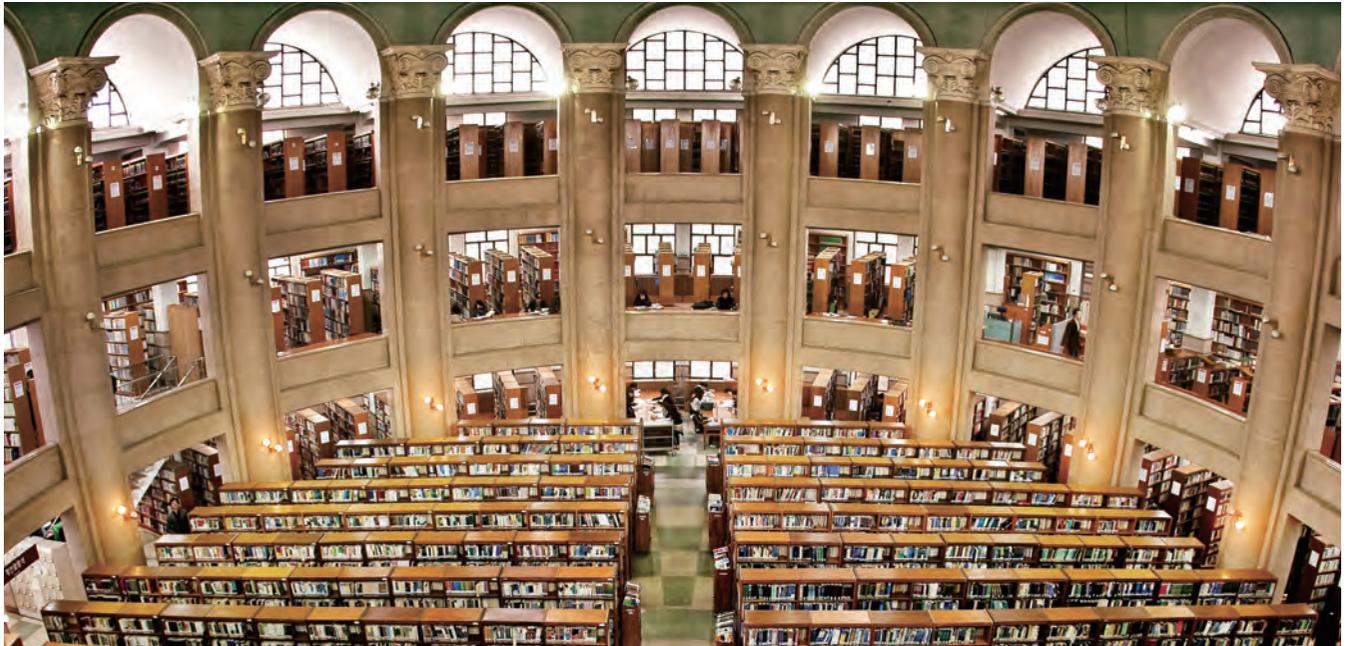
"정당한 사유 없이 총장 승인을 취소하려거든 차라리 경희를 국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문교부는 이렇다 할 해명 없이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열흘 뒤 문교부장관은 조영식 박사 자택으로 찾아와 "군사정부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대학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니 잠시만 총장직에서 물러나주시면 머지않아 복귀시켜드릴 것입니다. 총장직이 아니라도 학원장으로서 경희학원을 운영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말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총장 승인 취소는 군사정부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정치보복이었다. 조영식 박사가 제3대 총장으로 복귀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963년 5월 18일이었다.

세계대학총장회(IAUP) 서울대회 유치

조영식 박사 주도 아래 196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IAUP 창설
1968년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2차 대회 개최, 국제적 위상 높여



1968년 6월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2차 대회는 중앙도서관 원형열람실(사진)에서 개막됐다. 이 대회는 경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경희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조영식 박사의 오랜 꿈이었고 전 구성원의 소망이었다. 1968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AUP) 서울대회는 그 꿈을 실현하는 전환점이었다.

세계대학총장회는 조영식 박사 주도 아래 1965년 6월 29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창설된 세계 지성의 모임이다. 그의 처음 계획은 아시아대학총장회 결성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던 중 1964년 미국을 방문해 페어리디킨슨대학 피터 삼마르티노 총장과 논의하다가 두 사람은 세계대학총장회를 결성하자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 후 1년 동안 노력한 끝에 264개 대학이 가입하는 결실을 맺고 마침내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조영식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지성인의 사

명과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학 총장들은 다음 세대의 지성을 육성하고, 또 현세대의 지성인을 이끌고 있음을 자각하여 각 민족의 상호 이해와 발전을 위하여 학술·문화의 교류를 도모하고, 인류는 공동 번영을 기해야 하며, 인류의 모든 지혜와 정력은 복리 증진과 가치 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국가의 자존심 걸고 대회 유치 경쟁

대회 폐막에 앞서 3년 후 치러질 2차 대회 개최국과 주관교 결정을 놓고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졌다. 대회 기간에 조영식 박사는 자존심이 상하는 질문을 받곤 했다. “한국에 경희대 이외에 대학이 또 있느냐?” “언어는 일본어를 쓰느냐 중국어를 쓰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국제사회의 인정 받지 못하는 신생 약소국이었다. 그

같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영식 박사는 기필코 2차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결심했다. 한국의 문화전통과 발전상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을 설득했다.

끈질긴 노력으로 2차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처럼 큰 국제행사를 치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한국은 그 정도 규모의 국제행사를 주최한 경험이 전무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못한 일을 일개 대학이 추진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조영식 박사는 대회 1년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부서에 교직원 150명을 배치했다. 외국어에 능숙한 학생 300명을 선발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대회의 의미를 깨달은 정부는 총 소요 경비 2,600만 원의 43%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기념우표와 기념담배가 제작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행사였

다. 국내 언론들은 대회 개최 10일 전부터 대대적인 보도 경쟁을 벌였다.

1968년 6월 18일 대회 개막식에 맞춰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이 준공됐다. 개막식장은 원형열람실에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세계 35개국 총장 105명을 비롯한 참가자 156명, 박정희 대통령과 주한 외교사절 등 국내외 귀빈 300여명, 국내외 보도진 200여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영식 박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세계대학총장회 창설을 지원하고 제1차 대회 의장직을 맡았던 미국 페어리디킨슨 대학 삼마르티노 총장은 개회사에서 “전쟁에 시달린 한국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과감히 커다란 발전을 이루고 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고 한국 교육계의 발전을 축하했다.

또한 그는 대회를 주관한 경희대학교와 조영식 박사에 대한 특별한 소감도 전했다. “저는 경희대학교와 특히 이 모임을 준비하는 데 있어 초인적 노력을 보여준 조영식 총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저 조영식 총장의 정력과 그 방대한 상상력에 놀랄 뿐입니다. 그는 작은 일이라고 하여 외면한 적이 없고 계획이 방대하다고 하여 중도에서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대학총장회 서울대회는 경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불어넣었다.

국가 차원에서도 한국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였다. 이 행사는 1968년 한국 정부의 10대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됐다. 그러나 그 같은 성공 뒤에는 예기치 않은 사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악의적인 문교부 특별감사

그 무렵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을 이끌 어갈 차세대 지도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다. 한국일보 발행인 장기영, 서울시장 김현옥, 경희대 총장 조영식. 이들 세 사람은 ‘3인의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국민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1969년 1월 조영식 박사는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다. ‘사학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문공위원회에서 원탁회의 형식을 회담을 갖고자 하니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막상 회의장에 들어서자 정책 토의와는 상관없는 악의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심지어 “왜 세계대학총장회를 개최했느냐”는 억지 주장까지 있었다.

둘째 날에는 사학을 매도하는 원색적인 비난에 이어 모욕적인 인신공격까지 있었다. 이른바 국회 문교행정특별감사위원회의 특감은 조영식 박사를 겨냥한 정치 공격이었다.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국회의 특감으로 인해 경희대학교는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조영식 박사는 이를 비약적인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다.

미래 세대 위한 ‘희망의 메시지’ 발표

한 예로, 1964년 10월 2일 개교 15주년 기념 학원제에서 조영식 박사는 그때까지 이룬 성취를 평가하는 대신, 개교 50주년과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미래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경희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대학을 건설하고 인류의 복리 증진과 세계평화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1969년 경희대학교는 개교 20주년을 맞았다. 인간으로 치면 성년식을 치른 것이다. 이날 세계 20개국 253개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속속 도착했다. 이는 경희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조영식 박사는 평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교 20년까지 외적인 건설을 마무리하고 그 후부터는 내적인 충실에 전력을 기울여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개교 20주년을 외형적 성장에서 내면적 성숙으로, ‘한국의 경희’에서 ‘세계의 경희’로 발전하는 전환점이었다.



IAUP 서울대회 개막식(왼쪽)에는 세계 35개국 총장 105명을 비롯,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른쪽은 1969년 10월의 경희인상 제막식.

‘목련’과 ‘웃는 사자’ 경희의 상징으로 제정

1970년대 경희, 정권 탄압으로 10년간 학과 증설 동결



1970년 목련이 교화(校花)로 제정됐다. 목련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경희의 도전정신을 상징한다.

가 곡 ‘목련화’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 하는 노래의 하나로 꼽힌다. 목련은 매서운 추위가 아직 물러가지 않은 때 가장 먼저 희고 소담한 꽃잎을 피워 다가올 봄소식을 전한다.

조영식 박사는 1973년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 안에서 ‘목련화’ 노랫말을 지었다. 당시 경희대 음대 학장이던 김동진 교수가 곡을 붙였다. 1974년 개교 25주년 기념 ‘경희 칸타타’ 공연에서 처음 연주된 이 노래는 ‘국민 가곡’으로 애창되고 있다.

노랫말 중에 “추운 겨울을 헤치고 온 봄 길잡이 목련화는 새 시대의 선구자요”라는 구절이 있다. 역경과 시련을 딛고 경희를 일으켜 세운 조영식 박사의 강인한 의지와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또, 일제히 꽃잎을 터트리며 “함께 피고 함께 지는” 목련의 특성은 경희가 지향하는 공동체 정신을 연상케 한다.

목련은 경희를 상징하는 꽃이다. 1970년 5월 18일 경희대학교는 목련을 교화(校花)로 제정했다. 목련은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이라는 경희정신을 함축하고 있다.

경희의 정체성 확립하며 내적 충실 기해
서울캠퍼스 본관 석조전이 완공된 1956년부터 경희를 상징해온 동물은 ‘웃는 사자’였다. 중앙정원에서 석조전으로 올라가는 25층의 돌계단 양 옆에는 졸업생의 성급으로 세워진 두 마리의 ‘웃는 사자상’이 있다. 설계자인 조영식 박사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자가 오직 그 힘과 용맹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단지 무서운 존재가 될 뿐이다. 그 용맹한 사자가 웃는 사자일 때 그의 기상은 인자함과 덕이 조화된 외유내강한 참다운 만수의 왕이 될 것이다. 경희는 모

름지기 이와 같아야 한다.” 1970년대 들어 ‘웃는 사자’와 함께 ‘목련’이 경희의 상징물로 짝을 이루게 된 것은 경희의 발전 과정에서 각별한 뜻을 지닌다. 웃는 사자가 내면의 덕을 지닌 용맹성을 표현한다면, 목련은 그 안에 불같은 열정과 의지를 담은 정중동(靜中動)의 고아한 품격을 의미한다. 웃는 사자와 목련의 조합은 1960년대까지 외향적 발전에 치중해온 경희가 정체성을 확립하며 내적인 충실을 기하기 시작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10년 동안 정체된 경희의 발전

1970년대의 경희는 목련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고 빛나는 성취의 꽃을 피워냈기 때문이다. 조영식 박사는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정치적 오해를 샀으며 그로 인한 탄압을 감내해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신체제’를 구축해 장기 집권의 문을 열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조영식 박사는 야당측으로부터 대통령후보 제의를 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미 정치적 탄압을 경험한 그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러나 끈질기게 찾아와 간청을 하자 예의상 “생각할 시간을 달라”면서 돌려보냈다.

그 일이 밀미가 돼 경희의 발전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1971년 교육대학원 설립 인가를 얻은 것을 제외하면 경희대학교는 10년 동안 학과 증설이나 정원 증원이 거의 불가능했다.

조영식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관계가 원만했다. 그러나 대통령 주변에는 조영식 박사의 명성을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었다. 이들의 정치적 압력과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에 따라 경희의 편제 확장 및 개편은 답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1970년 경희의 대학 편제는 10개 단과 대학과 37개 학과, 신입생 모집 정원은 1,215명이었다. 1979년의 편제는 13개 대학과 43개 학과, 모집 정원 1,745명이었다. 10년 동안 3개 단과대학, 6개 학과, 정원 530명 증가에 그치고 만 것이다.

경희의료원 개원과 ‘제3의학’ 창안

1971년 당시 동양 최대 1,00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
서양의학·동양의학 접목해 ‘의과학 경희’의 독보적 전통 확립



‘의과학 경희’는 의료를 통해 보다 나은 인류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동서 의학을 결합시킨 ‘제3 의학’을 주도하고 있다.

1971년 10월 5일 경희의료원이 착공 6년 5개월 만에 준공됐다. 경희학원의 건설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30억 원)과 시간이 투입된 공사였다.

좀 더 쉽게 병원을 지을 수도 있었다. 당시 국내의 유명 대학병원들은 350~500병상 정도였다. 그러나 조영식 박사는 1,000병상 규모의 동양 최대 병원을 원했다.

단순히 크기에 집착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라 장차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질병을 퇴치해 보다 나은 인류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병원 규모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과대학 설립은 1955년 경희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할 무렵 이미 조영식 박사의 구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문교부로부터 신규 설립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 10

년 가까이 진척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행림재단 소유의 동양의학대학이 운영난에 봉착해 합병 대상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동양의학대학은 한의학 분야 국내 유일의 단과대학이었다.

7~8개의 대학이 인수 경쟁에 뛰어들었다. 협상은 5개월 이상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관청을 앞세운 방해공작도 있었다. 그러나 1965년 3월 행림재단이사회는 경희의 인수합병을 결의했다. 한 달 뒤인 4월 27일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동양외과대학 합병식과 함께 경희의료원 착공식이 거행됐다. 그해 12월 문교부는 경희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을 인가했다.

경희의료원 건립에 열정 쏟아

조영식 박사가 경희의료원 건설에 쏟은 열정은 상상을 초월했다.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지적을 구해서 읽는 한

편, 미국·일본·유럽의 병원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수많은 품목의 국제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했다.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출근길에 한 차례, 낮 시간에는 수시로, 퇴근길에 또 한 차례, 하루 세 번 이상 현장을 돌아보았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18층 건물을 오르내리며 구석구석을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 한의과대학병원 등 3개 병원으로 구성된 경희의료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준공식에서 조영식 박사는 “경희의료원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국민의 것, 국가의 것”이라면서 “우리의 노력과 정열이 깃든 경희의료원을 국민에게 헌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언에 드러나 있듯이, 의과대학

과 병원 설립에 대한 그의 집념은 질병 없는 인류사회 건설을 위한 봉사정신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고등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기관이다. 경희대학교는 한 발 더 나아가 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대학의 제3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그런 뜻에서 ‘교육, 연구, 진료, 봉사’를 표방한 경희의료원은 경희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다.

〈동양의학대사전〉 발간

경희의료원 설립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조영식 박사는 동양의학대학을 인수하기에 앞서 허준의 〈동의보감〉과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등 동양의학 고전을 섭렵했다. 〈동의수세보원〉을 읽고 난 뒤 100년 전에 이제마와 같은 위대한 의철학자(醫哲學者)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이때 조영식 박사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시켜 ‘제3의학’을 창출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독자적 발전과 함께 이들을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의과학 경희’의 전통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동·서 의학 협진은 경희의료원 개원 초기부터 큰 성과를 거뒀다. 1972년 9월 9일 경희 의료진은 침술 마취에 의한 맹장 수술에 성공했다. 침술 마취 수술로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지만, 약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복 수술에 성공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었다.

‘제3 의학’을 창안하겠다는 경희의 의지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옛 동서신의학병원) 건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1991년 4월 25일 기공식에서 조영식 박사는 “동서의학의 협력을 통하여 2000년대를 주도하는 첨단 의학의 기수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라고 말한 뒤 “중국, 인도, 이집트 의학까지 흡수하여 실질적인 제3 의학을 완성함으로써 선진국 어느 병원에 못지 않은 21세기 최고의 병원으로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양의학대사전〉 간행도 ‘제3 의학’ 창출에 대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었다. 1992년부터 7년간의 작업을 거쳐 개교 50주년을 맞은 1999년 완성을 보았다.

제작을 시작할 당시 한국에는 전통의학과 관련한 사전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중국에서 발행된 〈중의대사전〉, 북한의 〈동의학사전〉, 일본의 〈동양의학대사전〉 등이 있었으나 백과사전(Encyclopedia)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전 12권으로 발행된 경희의 〈동양의학대사전〉은 표제어가 5만 2,500여 항목에 이르는 등 〈중의대사전〉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사전 편찬에 투자된 자금만 해도 30억 원이 넘었다. 〈동양의학대사전〉 편찬은 한의학 발전의 선두주자라는 경희의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교육개혁 추진, 신입생 선발 ‘전기 모집’ 전환

해방 후 20여 년 동안 국내 대학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양적인 면에서 팽창이 두드러졌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대학들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에 착수했다.

문교부 역시 ‘고등교육의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국내 대학들의 질적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구하는 교수, 공부하는 학생’은 1970년대 국내 대학사회의 화두였다. 경희의 슬로건 중 하나인 ‘마음껏 가르치고 마음껏 배우는 대학’은 이런 맥락에서 채택됐다. 교수와 학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첫 조치로 조영식 박사는 ‘교수연구과과제도’를 도입했다.

교수의 연구 실적, 강의 실적, 학생 지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연구 및 교육 활동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71년부터 10년간 6,000편의 저서와 논문이 발표됐다.

개교 25주년과 개교 30주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교육 개선 계획도 수립됐다. 1972년부터 연례행사처럼 치러진 ‘교수 세미나’는 5년 뒤, 10년 뒤의 경희를 내다보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실험대학 운영 방안, 경희의 세계화를 향한 대학교육 개선책 등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연구 의욕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지원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연구에 필요한 도서와 실험실습 기자재를 부족함 없이 공급했으며 교수연구기금을 조성해 연구 활동을 뒷받침했다.

197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제도를 후기 모집에서 전기 모집으로 변경한 것은 경희의 질적 도약을 위한 큰 모험이었다. 그때까지 전통적인 명문으로 꼽혀온 대학들과 신입생 유치 경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이었다. 입시 경쟁률이 상승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지원이 늘었다. 전기 모집으로 전환한 이후 교양학부 출석률이 99%로 높아졌다. 도서관 이용자 수는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1971년 10월 준공된 경희의료원은 당시 동양 최대인 1,000병상 규모로 세워졌다.

국제학술회의 개최 경희의 국제화 앞당겨

조영식 박사, 1975년 '보스턴 선언문' 이끌어내



'문화세계 창조'라는 경희의 창학이념은 '인류의 합창'을 지향한다. 개교 30주년은 베토벤 합창 교향곡으로 마무리됐다.

세계대학총장회(IAUP) 서울대회 개최로 자신감을 얻은 경희는 1970년대 들어 각종 국제학술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

경희의 국제화는 1960년 10월 미국 마이애미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에서 출발했다. 201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경희대학교는 국제화 부문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그 바탕이 된 것은 지난 40여 년간 축적해온 국제학술회의 개최 경험이었다.

국제화 촉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조영식 박사가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노력을 기울인 것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전 세계 지성인들과 한 자리에 모여 현대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의 길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였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제적 위

상 강화로 이어진 것이다.

국제학술회의는 지구적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세계 석학들의 강연은 연구 의욕을 자극했다. 또한 해외 명문대학과의 교류·협력은 경희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했다.

전 세계에서 자매결연 요청 쇄도

1971년 7월 필리핀 대학총장연합회는 마닐라 시 창설 400주년을 기념해 세계대학총장대회를 개최했다. 전 세계 400여 대학 총장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조영식 박사는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의 구현(World Peace Through Education)'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대회가 끝난 뒤 기조연설문은 같은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돼 미국, 동남아, 아프리카 여러 대학에서 교재 또는 부교재로 사용됐다.

경희의 국제적 위상이 하나의 정점을 이룬 것은 1975년의 '보스턴 선언'이다. 그해 11월 11일부터 3일 동안 보스턴에서는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4차 대회와 미국주립대학총장회(AASCU) 연차대회가 합동으로 개최됐다.

보스턴 학술대회는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였지만 준비와 진행을 주도한 것은 경희대학교였다. 당시 조영식 박사는 세계대학총장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보스턴 대회 기조연설을 맡은 조영식 박사는 "오늘의 대학은 정신적 심연에서 허덕이는 인류를 건져내야 한다"면서 "정신과 물질의 불균형에서 오는 여러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육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민주시민 교육, 전인 교육, 인간 중심의 교육, 인류의식이 전제된 민족 교육, 평화 지향의 교육'을 제시했다.

연설의 결론에서 조영식 박사는 "인류 일체의의식과 인본사상을 토대로 전통적 가치관을 대치할 새로운 가치질서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조연설 내용은 대회의 결정체인 '보스턴 선언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는 1981년 UN이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하는 기본 정신으로 이어졌다. 보스턴 대회가 끝난 뒤 경희대학교에는 전 세계 대학들의 자매결연 요청이 몰려들었다.

1970년대 마무리한 개교 30주년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제화 기반 구축에 성공한 경희는 1970년대를 개교 30주년 기념행사로 마무리했다.

1979년 10월 28일부터 4일간 경희대학교는 로마클럽과 합동으로 '21세기의 전망과 문제점'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장인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는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300여 명의 국내외 석학이 참석했다.

12월 9일에는 경희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국립극장에서 연주했다.

정치적 혼란 극복, 교육의 바른 길 걸어

1980년 군사정권 탄압으로 조영식 박사 총장 퇴임
'비리 조작' 겨냥한 특별감사가 오히려 경희의 투명성 입증



경희의 봄은 '벚꽃 축제'의 계절이다. 그러나 1980년 봄, 경희는 군사정권에 의해 조영식 박사가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시련의 계절을 맞았다.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정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1979년 12월 12일 새벽, 이른바 신군부(新軍部)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국민들은 숨을 죽이며 불안한 눈으로 정국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다.

이듬해 대학이 개강하자마자 전국의 캠퍼스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군부의 재집권 시도를 막기 위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센 시위가 이어졌다.

의외로 계엄 당국은 이를 방관하는 태도였다.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억눌렸던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분출했다. '80년의 봄'으로 불리는 4월과 5월 사이 학생들은 도심의 거리를 점령했다.

곧이어 신군부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들은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

고 정치인, 교수, 학생, 재야인사 등 2,600여 명을 체포했다. 주요 대학의 정문이 봉쇄되고 캠퍼스에는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주둔했다. 언론은 계엄 당국의 검열을 받아야 했다.

1980년대 초반의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경희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어떤 이유에선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구호는 '총장 사퇴'로 번졌다.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은 총장실이 있는 본관 석조전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수업이 중단되고 학사행정이 마비됐다.

대학 장악 위한 신군부 세력의 압력

조영식 박사는 시위 학생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한 달 만에 걸친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끈질긴 노력 끝에 1980년 5월 14일 극적인 합의에 도달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점거농성을 풀었다. 교훈에 '학원의 민주화'를 명문화한 경희정신의 승리였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내부 갈등과 혼란을 이겨낸 경희는 새로운 각오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보기관으로부터 조영식 박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상의할 것이 있으니 한번 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짜고짜 경희대 총장직을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당신이 모범적으로 물러서면 최단 시일 내에 복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조영식 박사는 위축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달라"고 대응했다. 그들은 "학원이 너무 시끄러우니 조금만 참고 넘어가자"고 회유했다. 이에 대해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잘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되지만 잘

못한 것을 잘했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새로운 권력자로 떠오른 신군부에 대한 가장 큰 저항세력은 학생운동권이었다. 신군부는 ‘80년의 봄’이 발원한 대학을 장악하기 위해 사회 혼란의 책임을 대학 측에 덮어씌우려고 했다. 몇몇 사립대학 총장을 강제 사퇴시켜 본보기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 상징적인 표적이 조영식 박사였다.

정보기관에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군부 세력의 노골적인 압력이 가해졌다. 문교부 관계자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전화를 걸어 “내일까지 사표를 내라”고 협박했다.

경희의 사황이 걸린 상황에서 조영식 박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한 강제 퇴임에 이은 두 번째 총장 사퇴였다. 조영식 박사가 다시 총장으로 복귀한 것은 1988년 1월 13일이다.

경희를 겨냥한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

제5공화국이 출범하기 전 조영식 박사는 군사정권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일생을 교육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어서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조영식 박사의 일관된 답변이었다. 그로 인해 미움을 받아 3일 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희를 겨냥한 정권의 압박은 집요했다.

1981년 초 정부의 특별감사반이 들이닥쳤다. 본관 중앙회의실에 본부를 차린 그들은 학사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무언가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 학교를 발각 뒤집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이중장부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다. 학교 측은 “있지도 않은 장부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고 맞섰다. 비리를 조작하려던 그들은 빈손으로 물러서야 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총장직에서 물러나 있던 조영식 박사와 그 가족들을 연행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다. 조영식 박사의 자택과 집무실, 비서실, 공관을 수색했다. 대학의 주요 보직자들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찰에 끌려갔다. 한 트럭 분량의 학교 서류가 검찰에 제출됐다.

비록 군사정권의 서슬이 퍼런 시절이었지만 이에 대한 사회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은 사학재단 설립자와 그 가족을 불법으로 연행해 학대해도 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검찰은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고 연행자 전원을 풀어줬다.

“이렇게 검소한 총장은 보지 못했다”

당시 수사팀에 소속돼 있던 한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후일담을 학교측에 전해왔다.

“우리는 처음 수사를 지시받고 자신 있

게 조영식 박사의 집을 덮쳤다. 그러나 금방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귀한 고가품이나 유가증권, 토지 관계 서류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뽀새나는 응접실에서 털려온 것은 먼지에 쌓인 고서(古書)뿐이었으며 해외 자매대학 총장들이 선물로 보낸 조개껍질 따위가 전부였다.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조영식 씨 한 분뿐일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악의적인 특별감사로 인해 경희는 학교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조영식 박사와 가족들은 무고하게 검찰에 끌려가 고통을 받아야 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였다.

사건이 종결된 후 조영식 박사는 문교부장관에게 “공연히 신문에만 떠들썩하게 하여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문교부가 그 감사 결과와 경희의 무죄를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다. 그러자 공색한 답변이 돌아왔다. “경희대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체가 곧 잘못이 없다는 뜻이 되지 않느냐.”

문교부장관의 말대로 경희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국내 어느 대학보다 깨끗하며 정도(正道)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공인받은 셈이었다. 이 사건 이후 비리와 부정을 빙자한 정권의 부당한 압력은 더 이상 시도될 수 없었다.

한국 스포츠 요람 체육대학관 화재 후 재건축



경희의 시련은 조영식 박사의 총장 퇴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계속되는 시련을 예고하듯이 1980년 10월 3일 체육대학관이 불길에 휩싸였다. 동네 부랑아들의 불량난에 의한 화재였다.

경희의 체육대학관 건립은 미스터플랜에 의한 초창기 건설사업 중 두 번째로 큰 공사였다. 1957년 준공 당시 1,114평의 체육대학관에는 농구, 배구, 체조, 탁구, 핸드볼, 배드민턴 경기장이 갖춰져 있었다.

1959년 국내 최초로 야간 경기가 치러진 유서 깊은 장소이자 한국 스포츠의 요람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에 출전한 한국대표 선수와 임원의 60%가 이곳에서 공부하고 땀을 흘리며 신체를 단련했다. 그 건물이 하루아침에 뼈대만 남은 채 불타

없어진 것이다.

‘옛 것을 잃으면 그보다 훌륭한 새 것을 짓는다’는 것이 경희의 도전정신이다. 그러나 재건축을 위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았다. 정치적 혼란과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해 1980년 한국 경제는 산업화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500명의 재학생 가운데 38명만이 등록 마감일에 등록금을 납부할 정도로 경제 형편이 어려웠다.

조영식 박사는 또다시 자택을 처분했다. 체육대학 졸업생들도 성금을 마련했다. 2년이 넘는 공사 끝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2,300평의 체육대학관이 다시 세워졌다. 뒷날 체육대학은 수원의 국제캠퍼스로 이전했다.

‘세계적 캠퍼스’ 목표로 국제캠퍼스 건설

교지 매입·문교부 허가 등 난관 이겨내고 1980년 출범
응용학문 중심의 특성화에 성공, 2011년 캠퍼스 통합 승인 받아



국제캠퍼스 '사색의 광장'에 세워진 2개의 거대한 오벨리스크에는 '제2 르네상스 햇불 들어 온 누리 밝히는 등불 켜자'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1970년대의 경희는 내적 충실을 기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성공했음에도 집권세력의 시기와 압력에 의해 단과대학이나 학과 증설에 큰 제약 을 받았다.

그러던 중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책과 문교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맞물려 캠퍼스 신규 건설이 가능해졌다. 1978년 3월 고향재단 이사회는 분교 설립을 결정하고 전담 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원에 뿌리내린 '뉴 칼리지' 건설의 꿈

조영식 박사는 이미 1년 전부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은밀하게 교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의 구상은 원래부터 '분교'가 아닌 독립적인 '제2 캠퍼스' 건설이었다. 모델이 된 것은 세계 명문대학들에서 영감을 얻은 '뉴 칼리지 시스템'이었다.

뉴 칼리지 시스템의 교육 목표는 '폭넓은

기초학문 위에서 인간교육과 전공교육을 병행하고, 도덕교육을 바탕으로 전인적 인격을 갖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조영식 박사는 선진적 교육이 가능한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의 법규는 '분교' 형태로만 설립을 승인했으므로 당분간 이를 따라야만 했다.

그는 분교설치준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몇 개월 동안 전국을 답사하며 학교 부지를 물색했다. 제1의 조건은 산과 강, 또는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환경이었다. 세계적인 캠퍼스를 건설하려면 그에 걸맞은 환경이 갖춰져야 했다.

'전원 속의 캠퍼스'가 들어설 만한 곳을 찾기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우연히 신갈 부근에서 차창 너머로 펼쳐져 있는 경관을 발견했다. 30년 전 청량리 부근에서 고향산 기슭을 바라보았을 때처럼 마음에

안겨드는 느낌이 밀려왔다. 게다가 서울과 가까운 위치여서 이곳에 제2 캠퍼스를 세운다면 서울캠퍼스와의 소통이 원활할 것이었다.

조영식 박사는 신갈호수 부근의 넓은 터위에 미래지향적 캠퍼스를 건설하는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대의 땅은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부유층의 별장지이거나 문중이 소유한 전산이어서 매입이 쉽지 않았다. 지주들을 설득하느라 기진맥진한 위원들은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조영식 박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몇 달 동안의 노력 끝에 일단 1만 2,000평을 확보했다.

"산너머까지 더 많은 땅 매입합시다"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지 매입에는 성공했으나 이번에는 또 다른 난관이 닥쳐왔다. 문교부는 경희의 분교설립신청서를 반려했

다. '학교 부지가 고속도로 근처에 있어 건물이 세워지면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조영식 박사는 자연환경과 인공구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철학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건설계획이 경관을 해칠까닭은 없었다. 그런데 당시 일부 대학이 환경에 대한 배려 없이 건물을 짓는 바람에 불뚱이 튼 것이었다. 문교부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고 설계계획을 변경해도 "어쨌든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당시 교지 매입에 들어간 돈은 20억 원이 넘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고 해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땅을 되팔기란 불가능했다. 조영식 박사는 결단을 내렸다. "산 너머까지 더 많은 땅을 매입합시다."

1979학년도 입학시험을 2주일 남기고 추가 매입에 나서 1만 8,000평의 땅을 더 확보했다. 새 부지에 건물을 지으면 고속도로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 번째 신청 끝에 문교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1979년 1월 10일, 입학시험을 불과 5일 앞둔 때였다.

1979년 5월 2일 국제캠퍼스 첫 건물의 기공식이 거행됐다. 이공대학관이었다. 그 사이 계속 땅을 매입해 캠퍼스 부지는 21만 평에 이르렀다.

조영식 박사가 직접 설계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공원 속의 캠퍼스'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당시 조영식 박사는 <대학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제캠퍼스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번 수원대학(국제캠퍼스)을 설립한 것은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한 것이다. 수원대학은 특색 있는 학과를 주축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국가가 시급히 요청하는 인재를 키우는 데에 그 목표를 두겠다."

분교에서 종합캠퍼스로

1980년 국제캠퍼스는 경영학부·이학부·공학부 등 3개 학부 8개 학과, 입학 정원 450명으로 출발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2012년 현재 53만 평의 자연환경 속에서 9개 단과대학 44개 학과에 소속된 1만 3,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조영식 박사는 처음부터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각기 특성화된 종합캠퍼스로 발전하면서 경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되기를 원했다. 그 구상에 따라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의학·기초과학·예술 등 순수학문 중심으로, 국제캠퍼스는 공학·응용과학·국제학·현대예술·체육 등 응용학문 중심으로 순차적인 편제 개편이 진행됐다.

그러나 '50년 뒤'를 내다본 그의 미래 구상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 단과대학 이전 또는 학과 통폐합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과장된 소문이 퍼지면서 학내 시위가 확산됐다.

총장직에서 물러나 있던 조영식 박사에게는 이를 해결할 어떤 권한이나 기회가

없었다. 1982년 계속되는 학내 분규 속에서 총장을 비롯한 28명의 보직 교수 전원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8년 공백기' 이겨낸 국제화 열정

비록 조영식 박사가 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경희의 발전계획은 후임 총장들에 의해 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새삼스러울 것은 없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조영식 박사의 구상이 그만큼 치밀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부재가 구성원 간의 화합과 추진력 면에서 약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었다.

조영식 박사의 강제 퇴진은 경희의 발전을 지연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는 8년의 '공백기' 동안 세계평화의 이상을 구현하는 국제 활동에 정열을 쏟았다. 그 대표적인 성과는 UN의 세계평화의 날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1988년 조영식 박사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경희는 오랫동안의 혼란을 끝내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국제캠퍼스는 경희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캠퍼스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학과 편제와 행정체계를 선진화하며 특성화된 종합캠퍼스로 발돋움했다.

1979년 '분교' 형태로 설립된 국제캠퍼스는 지난 2011년 교육부로부터 서울캠퍼스와의 통합이 정식 승인됐다. 조영식 박사가 구상했던 '하나의 경희'는 30여년이 흐른 후 완전한 통합체제를 갖추게 됐다.



조영식 박사는 1970년대 말부터 '50년 뒤'를 내다보는 국제캠퍼스 건설 계획을 세웠다.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공사를 진두지휘했다.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 우뚝 선 경희

개교 50주년 맞아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희” 슬로건 채택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국제캠퍼스 ‘새천년 기념탑’ 잇달아 준공



2001년 9월 국제캠퍼스 정문 ‘새천년 기념탑’ 준공과 함께 경희는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의 문을 열었다.

1990년 경희는 재도약의 의지로 충만한 새해를 맞았다. 구성원 간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의 길을 열었다.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대학당국 등 각 구성원 대표는 민주적 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대학발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학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해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 국내 사립대학 최초로 교수 연구년제를 도입해 대학사회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1991년에는 종합전산망을 설치해 행정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제2의료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 기공식을 갖고 의과학 경희의 새 미래를 열었다.

그러나 사회 현실은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노태우 정권의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 및 사회운동 세력은 각 대학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개최했

다. 학생과 경찰은 교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돌을 던지고 최루탄을 쏘아댔다. 면학 분위기가 정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최악의 사태 불러온 약사법 개정

1993년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해 3월 임시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반 약국에서 100여 개의 한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한의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의 한의과대 학생들은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조영식 박사는 수십 차례에 걸쳐 긴급 교수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수업에 복귀해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은 완강했다. 수업 거부는 1학기 내내 이어졌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집단 유급이 불가피했다.

조영식 박사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문교부장관과 보사부장관을 면담하고 구

제를 호소했다. 집권당인 민정당 사무총장을 학교로 불러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환원되지 않는 한 전국 한의과대 학생 3,000여 명이 제적 또는 유급되는 심각한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른바 ‘한약분쟁’은 대량 유급이라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집단 유급 책임지고 총장직 사퇴

1993년 8월 27일 조영식 박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자들의 집단 유급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총장직을 사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이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학생들이 조속히 수업에 복귀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차원을 넘어 교육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은 조영식 박사가 1970년대부터 구상해 1999년에 완성한 문화예술의 전당이다.

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자의 양심에 따른 그의 자진 사퇴는 값진 결말을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수업 거부를 종결하고 강의실로 돌아왔다. 정부도 학생들의 유급 사태를 박기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경희대뿐 아니라 전국의 한의과대 학생들이 구제됐다. 그러나 조영식 박사는 경희대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NGO세계대회 개최와 평화의 전당 준공

1999년 조영식 박사는 UN의 승인 아래 서울NGO세계대회를 유치했다.

이 대회를 계기로 경희는 또 하나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었다. 평화의 전당이 준공된 것이다. 평화의 전당은 대지면적 3,312평 연면적 4,611평 규모에 최대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문화예술 공간이다.

조영식 박사가 평화의 전당을 구상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다. 20년 동안 세계 100여 국가를 방문하면서 경희의 이름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세우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1976년부터 1977년까지 위치, 형태,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직접 수립했으며 이듬해 설계가 완성됐다.

평화의 전당은 1981년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1986년 예상치 못했던 압력에 의해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당시 서울캠퍼스 부근 이문동에는 국가 안전기획부(안기부) 청사가 있었는데 평화의 전당이 완성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트집을 잡았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1995년 안기부 청사가 이전한 뒤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곡절을 거쳐 '1999 서울NGO세계대회' 개막식 당일 평화의 전당 개관식이 거행됐다.

1999년은 20세기의 마지막 해이자 경희가 개교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였다. 20세기 중반 전쟁의 참화 속에서 경희의 기틀을 세운 조영식 박사는 50년 동안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경희를 국내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세계평화운동의 전환점이 된 서울 NGO세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속의 경희'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며 21세기를 맞이했다.

21세기를 위한 네오르네상스 운동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희.' 조영식 박사가 1999년 개교 50주년을 맞아 직접 작성해서 제안한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에는 "전쟁과 갈등, 차별과 인간성 상실로 얼룩진 20세기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 인간 존중의 문화복지 사회가 될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열어가야 한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것을 위한 실천을 그는 네오르네상스(Neo Renaissance) 운동이라고 명명했다.

2001년 9월 28일 국제캠퍼스 정문이 준공됐다. 폭이 62미터, 최고 높이가 22.5미터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문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위에 화강석으로 마감한 이 문은 16개의 돌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상징적 조형물들이 건축미를 돋보이게 한다.

국제캠퍼스 정문의 이름은 '새천년 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이다. 입구를 뜻하는 문이 아니라 21세기를 기념하는 탑인 동시에, 미래의 평화세계로 들어서는 입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영식 박사의 원대한 포부는 오늘날 경희학원을 이루고 있는 풀 한포기, 돌 하나, 건물 하나, 그리고 경희 구성원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세계평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의 미래지향적 도전정신과 헌신적 노력은 경희의 지나온 역사 속에 경이로운 발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2009년 5월 18일 개교 60주년을 맞아 경희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공헌의 실천을 통해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고등교육의 힘으로 문화세계를 창조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미원 조영식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경희는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며 21세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하고 있다.

실천적 사상가 조영식 박사

조영식 박사는 교육자인 동시에 사상가이자 실천가였다.

그가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처음 쓴 책은 <민주주의 자유론>이었다.

30세 때는 전쟁의 혼란기에 두 번째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를 펴냈다.

초기의 저서들은 민주주의와 인간 중심의 문화세계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경희대학교의 창학이념이다.

그의 사상은 인류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세계, 즉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오토피아 창조론’으로 확장된다.

그것이 단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데 그의 사상의 탁월함이 있다.

그는 사회공헌을 통한 실천을 강조하며 1950년대 후반부터 농촌계몽운동,

잘살기운동, 밝은사회운동, 인류사회 재건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이 같은 그의 사상과 실천을 통해

경희는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고유의 학풍을 확립했다.

‘문화세계 창조’ 사상과 잘살기운동

〈우리도 잘살 수 있다〉 통해 근대화의 사상적 기반과 실천적 방법론 제시
1965년 잘살기운동 선언하고 전 국민의 의식혁명·생활혁명 주도



경희의 창학이념이자 조영식 박사 사상의 뿌리인 '문화세계의 창조'는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평화공동체 건설이다.

1951년 조영식 박사는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포성과 처절한 아우성 속에서 두 번째 저서를 집필하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겪었다. 태평양전쟁과 6·25전쟁이다.

일제의 수탈과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며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뼈속깊이 깨닫고 있었다. 세상을 향해 쏟아낼 새로운 메시지가 그의 내면에서 용솨음쳤다. 책의 제목은 〈문화세계의 창조〉로 정했다.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은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며 그 중간적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서 완성되는 것이며 문화와 가치의 창조자로서 개성을 구유(具有)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과 충동에 의존하는 존재도 아니고 신과 같이 완전한 이성을 지닌 존재도 아니다. 그렇기

만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모두 갖고 있는 존재로서, 본능과 이성을 통제하며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격체로서, 선한 의지(Goodwill)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격의 가능성을 믿었다.

‘문화세계 창조론’ 핵심은 정신과 물질의 조화

〈문화세계의 창조〉는 인간의 보편의지를 옹호하는 저술이었다. 오랫동안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것은 동물적 힘의 논리에 입각한 약육강식의 자연규범이었다. 이에 맞서, 조영식 박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편의지에 입각한 문화규범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평화공동체를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이 ‘문화세계 창조론’의 골격이다.

이런 생각을 30세 청년이, 그것도 전쟁

의 혼란기에 하나의 사상체계로 정립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로 평가된다. 1998년 2월 23일 경희대학교에서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6·25 때 부산에 있을 때 1951년 신홍대학의 학장을 하시는 분이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모두 전쟁의 와중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던 때라 문화 같은 것은 사치로 생각하던 때인데 조영식 선생은 그 책을 썼습니다. 본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으로 미안합니다만 그때는 젊은 객기에 한번 본때를 보여준다고 썼겠지 하는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 과연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견지명을 가지신 분이 있었구나 하고 감탄해 마지않았습니다. 20세기가 경제와 국방력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과 함께 사회적 실천을 중시해온 경희대학교는 1950년대 후반부터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잘살기운동 등을 전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객기’로 그 책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먹고 사는 것이 다급한 때 ‘문화’라는 말은 마치 외계의 언어나 다름없었다.

조영식 박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문화적 삶이 의식주 같은 생존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문화의식 없이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질서를 가져오며, 그것이 현대 물질문명의 한계를 초래한다고 생각했다. 그 극단적 형태가 전쟁이었다.

농촌계몽운동과 문맹퇴치운동

조영식 박사의 사상은 시대를 앞선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사상은 머릿속 생각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현실 개선의 의지를 지닌 실천가이기도 했다.

실천적 사상가로서 그의 면모는 경희의 교육철학에 잘 나타나 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학술기관이다. 그러나 조영식 박사는 봉사를 통한 사회적 실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대학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은 이미 1950년대부터 확립된 경희의 오랜 전통이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학문적 가치를 숭상하던 유럽 대학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서 <대학의 이념>을 내놓은 것은 1952년이다. 그는 이 책에서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을 강조했다.

오늘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수백 년 역사

를 지닌 유럽 대학사회에서도 그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불과 60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대학의 역사가 짧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그 비슷한 시기에 조영식 박사에 의해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교육철학이 제시됐던 것이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67달러에 불과했으며 1960대 초까지도 87달러에 머물렀다.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률도 70%가 넘었다. 전쟁 후 한국을 방문한 UN조사단이 “금세기 내에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할 정도였다.

가난과 무지에서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조영식 박사는 경희를 의식혁명, 생활혁명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1956년부터 교직원과 학생, 졸업생들은 방학을 이용해 농촌계몽운동을 펼쳤다. 도시에서는 야학을 열어 글을 가르쳤다. 산림 훼손으로 전국의 산이 민둥산으로 변하자 산림녹화운동에 매진했다. 그는 문화와 교육의 힘으로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고자 노력했다.

사상과 실천의 결합, 잘살기운동

경희의 사회운동이 체계를 잡고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1960대 들어서다. 조영식 박사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세계 수십 개국을 순방했다. 세계대학총장회(IAPU) 창설을 위해 각국의 명문대학 총장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 그

는 어떻게 하면 한국을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심했다.

그의 오랜 구상이 집약돼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한 것이 잘살기운동이다. 1965년 10월 12일 경희학원제에서 조영식 박사는 잘살기운동을 선언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지금까지 가난 속에서 헤매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모아 선진 외국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의 발전과 부흥에 힘을 보태기보다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시비를 계속하다가 이렇게 외국에 뒤떨어진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보다 나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 잘살기운동을 벌여야 하겠습니다.”

이 선언에서 주목할 것은 조영식 박사가 방법론의 함정을 경계하며 실천을 강조했다. 잘살기운동과 유사한 주장이 그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론에 치우친 결과 소모적인 논쟁이 거듭될 뿐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잘살기운동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남달랐다. 당시에 제출된 대부분의 국가발전론은 선진국 모델을 추종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과학기술의 첨단을 달리고 있던 미국을 선망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과거 산업문명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거느렸던 강대국을 본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발전 모델은 국토가 좁고 인구

가 많은 데다 자원이 빈약한 한국에 적용될 수 없었다.

전 세계를 순방하며 조영식 박사는 특히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한국의 여건과 비슷한 '작지만 강한 나라'를 눈여겨보았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 '인간 자본'이라는 개념이었다.

“앞으로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교육받은 인적 자원, 즉 생산성 높은 인간을 키우는 일이다. 잘살아야겠다는 자각마저도 교육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나의 신념은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정신을 계발하고 일깨우는 길만이 우리가 잘사는 길이다. 한국의 잠재력인 자원은 인력 자원이고, 인력 자원은 교육에 의해서만 개발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조영식 박사는 선진국 모델에 대한 연구와 함께 후진국의 실태 파악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1964년 후진사회문제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그 때문이다.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은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밑바탕이 됐다. 후진사회문제연구소는 1973년 한국사회개발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를 확장 개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교 연구에 집중했다.

근대화 이념 제시한 <우리도 잘살 수 있다>

1965년 11월 조영식 박사는 새로운 저서 <우리도 잘살 수 있다>를 출간했다. 잘살기운동의 이념과 사상을 정리한 이 책

은 초판 발행 후 3년 동안 무려 15쇄를 인쇄할 정도로 반향이 컸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영식 박사에게 “당신의 책을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듬해 5월 조영식 박사는 개교기념식에서 '잘살기운동 헌장'을 제정·공포했다. 당시 전국 각지에는 잘살기운동 포어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 나붙어 경희인의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했다. 행진곡풍의 잘살기운동 노래 '앞을 보고 살아가자'는 국민가요로 애창될 정도였다. 경희의 합동교육과 장학제도를 통해 배출된 '인간 상록수'들이 전국을 무대로 의식개혁, 생활혁명의 기수로 활약했다.

“새마을운동은 곧 잘살기운동이다”

잘살기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한국 경제도 발전의 기틀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자리를 얻게 됐다. 조영식 박사는 새 시대 상황에 걸맞은 의식구조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72년 5월 '새 한국인 상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전국학술세미나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자리에서 조영식 박사는 세 가지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했다.

“첫째 창조적인 의지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근면하고 성실한 협동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셋째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구적인 기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곧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이라는 경희정신의 전국적 확장이었다.

1970년대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무렵 조영식 박사는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다. 장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을 잘살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조영식 박사는 세계 각국의 현실을 비교하며 경희가 전개하고 있는 잘살기운동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제1장이자 끝장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운동에는 관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뒷날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쉽게 말하자면 잘살기운동이다”라고 말했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유진오 박사도 “경희에서 잘살기운동을 먼저 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으로 결실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경희의 잘살기운동은 1970년대 한국 근대화를 견인한 새마을운동의 사상적 기반과 실천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잘살기운동이 1960~7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많은 발전도상국들이 연구하고 있는 학문 중 하나가 '박정희학'이다. 국민 의식을 개혁하고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것은 경희의 잘살기운동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50년 전에 조영식 박사가 정립한 사상체계는 21세기에도 유효한 실천적 사회사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경희구성원은 의료 혜택이 소외된 지역에서 무료 의료봉사(왼쪽)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경희의 농촌봉사활동(오른쪽)은 '농활'의 효시가 됐다.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밝은사회운동’

〈인류사회의 재건〉은 밝은사회운동의 사상적 기반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미래상 제시



1979년 개교 30주년을 맞아 ‘경희의 탑’이 완공됐다. 한 쌍으로 이루어진 탑은 각각 ‘잘살기운동’과 ‘밝은사회운동’을 상징하며, 12마리 사슴(사진)이 그것을 연결하고 있다.

197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한국 사회에 또 다른 그늘을 드리웠다. 인간소외와 도덕적 타락, 범죄 증가, 환경 파괴 등 산업사회의 병폐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은 산업화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잘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경제 개발은 오히려 인간이 물질문명에 지배당해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의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였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는 정신적으로도 풍요해야 하며, 정신적으로 풍요한 사회는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야 한다.”

조영식 박사의 이 말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산업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며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우는 것이었다.

지구공동사회 건설을 위한 밝은사회운동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공동체 건설에 대한 그의 의지는 이미 1951년에 발표한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에서 표명된 바 있다. 그 사상은 1960년대 들어 〈우리도 잘살 수 있다〉 출판과 함께 범국민적 잘살기운동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기 시작한 만큼 시대 변화를 수용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할 보다 발전적인 이론과 실천이 요구됐다. 경희의 밝은사회운동은 그에 대한 응답이었다.

1975년 10월 28일 경희대 대운동장에서 1만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밝은사회운동 경희학원 결성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채택된 3개 항의 ‘밝은사회운동 헌장’은 간결한 문장으로 인간중심주의(human-centrism) 문화사관을 압축한 행동 지침이었다.

1. 우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간 복원에 기여한다.
2. 우리는 선의(Goodwill), 협동(Cooperation), 봉사·기여(Service)의 정신으로 아름답고 풍요하고 보람 있는 사회를 이룩한다.
3. 우리는 인간가족의 정신으로 내 조국을 사랑하고 인류 평화에 기여한다.

밝은사회운동의 약칭은 ‘GCS 운동’이었다. 헌장 2항 ‘선의, 협동, 봉사·기여’의 영문 머리글자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GCS는 또한 운동의 궁극 목표 ‘지구공동사회

(Global Common Society)’를 의미하기도 했다.

2항에 제시된 ‘아름답고 풍요하고 보람 있는 사회’는 훗날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며 경희를 대표하는 슬로건 중 하나가 됐다. 경희대학교는 매년 가을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하고 있다. 여기서 BAR은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3대 원리, 즉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humanly Rewarding)’ 사회를 뜻한다.

〈인류사회의 재건〉 출간

밝은사회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것은 1975년에 발간된 〈인류사회의 재건〉이었다. 그의 대표적 저서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책은 국내외 학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 책을 한창 준비 중이던 1974년 조영식 박사는 세계인류학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해 8월 2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인류학자대회 기조연설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조영식 박사는 저서 내용을 요약해 ‘교육을 통한 인류사회의 재건’을 주제로 강연했다.

“인간 중심의 교육으로 인간성을 회복해 보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인간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의 연설은 대회 마지막 날 7개 항의 ‘인류사회의 신선언’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 선언은 세계 복지사회 건설의 이정표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밝은사회운동의 사상적 뿌리는 ‘인간의 재발견’

밝은사회운동의 문제의식과 실천 방향, 그리고 운동의 목표는 그 무렵 조영식 박사가 발표한 별도의 논문에 잘 요약돼 있다. ‘기술사회를 바라보며 밝은사회운동을 제창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먼저 현대 과학기술문명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했다.

“오늘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의 자기증식에 의한 단절적 빈곤을 느끼며, 기계와 능률만이 우선하여 인간이 부재하는 가운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전통적 문화와 가치질



조영식 박사는 1975년에 펴낸 저서 〈인류사회의 재건〉을 통해 밝은사회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구축했다. 아래 사진은 1975년 10월에 개최된 밝은사회운동 결단식.

서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과학의 확대 재생산에서 오는 인간소의 현상과 상호불신을 안고 있다. 되도록 많이 개발하고, 많이 만들수록 좋다는 최대 개발, 최대 생산, 최대 소비의 현 사회원리는 과학화, 능률화, 합리화만을 절대시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많은 발전을 안겨다주는 일방, 또한 오늘의 비정한 인간사회를 만들어놓고 있다.”

번영과 발전의 추구가 불신과 불화를 낳고, 급기야 인간 자신이 이룩한 과학문명에 의해 스스로 소외되는 역리현상을 빚게 됐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 따라서 ‘새

로운 정신적 방향’ 설정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인간이 함께 값있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와 규범을 세워야 한다. 그 규범의 타당성은 어디까지나 인간 조건에 두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인간 존중의 신인간주의 가치관의 출현이 요망되는 이유가 있다.”

조영식 박사는 인류를 자멸에서 구해내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 밝은사회운동을 제창하게 됐으며, 그것은 ‘인간의 재발견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회운동의 세계화

밝은사회운동 이전 경희의 사회봉사는 국내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다. 세계로 눈을 돌리기에겐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한국이 후진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경희도 명실상부한 종합대학 체제를 확립하고 국제화 역량을 갖추게 됐다.

밝은사회운동은 처음부터 국제적 사회운동으로 계획됐다. 밝은사회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경희는 교내 외에 밝은사회클럽(GCS Club)을 결성해나갔다. 1978년까지 조직된 국내 밝은사회클럽은 73개에 달했다. 이들을 주축으로 그해 6월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가 설립됐다. 이듬해인 1979년 GCS International(밝은사회국제클럽 국제본부)가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GCS 한국본부와 국제본부는 1989년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재단법인 국제밝은사회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해 ‘오토피아 평화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제1회 수상자는 부트로스-갈리, 제2회 수상자는 하비에르 데 케야르 전 유엔사무총장이었다. 제4회 때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토피아 사상과 ‘지구공동사회’ 건설

그릇된 현대 문명의 방향 바로잡기 위한 5대 과제 수립
1998년 세계평화의 날 국제학술회의에서 ‘새천년의 비전’ 제시



경희 캠퍼스에는 ‘경희정신의 상징’이 곳곳에 담겨 있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의 스테인드글라스에는 ‘오토피아 정신’이 아로새겨져 있다(사진 오른쪽 아래 부분).

인간은 유토피아(Utopia)를 꿈꾼다. 16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모어에 의해 처음 사용됐다는 이 말은 ‘지상에 없는 나라’를 뜻한다. 반면 조영식 박사가 주창한 오토피아(Oughtopia)는 지구상에 당연히 있어야 하고(Ought to be), 당연히 이루어야 하는(Ought to do) 문화세계, 곧 인간 중심의 지구공동사회(Global Common Society)이다.

〈오토피아〉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인류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당위적 요청사회’(Oughtopia)에 대한 사상적 토대와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한 명저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학 찰스 허긴스 교수는 조영식 박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독후감을 보내왔다.

“〈오토피아〉는 간결하면서도 심오하여 읽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책입니다. 〈오토피아〉는 지속적인

연구와 사색을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오직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만이 오토피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사회의 위기 진단과 극복 방안

〈오토피아〉에서 조영식 박사는 인류사회의 위기를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진단했다. 먼저, 그는 근대 이후 인류문명이 발전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을 잡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구의 르네상스 운동은 신 중심에서 벗어난 인본주의 정신의 승리를 가져왔으나, 중세 정신문명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은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을 이상화하며 정신문화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그 같은 문명의 실패로 인해 현실 생활 속에서 인류는 물질에 지배당하고, 인간 본연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상

실하게 됐다고 조영식 박사는 지적했다. 성과와 효율에 치중하는 실용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해 인류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 지구공동체보다는 국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반인간적 질서가 구축됐으며, 그에 따라 인류사회가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토피아〉는 그릇된 문명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철학과 규범의 재정립, 그리고 과도한 물질주의에 의해 왜곡된 인간생활의 조직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5대 과제는 ① 인간중심사회 건설 ② 문화규범 정립 ③ 보편민주주의 확립 ④ 지구공동사회 구축 ⑤ 파스 유엔(Pax UN) 구축 등이었다.

오토피아를 향한 경희의 지구적 실천은 인류사회재건운동으로 나타났다. 인류사

회재건운동은 조영식 박사가 <오토피아>를 저술하기 5년 전인 1974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세계인류학자 대회 기조연설 내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그는 '교육을 통한 인류사회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그 사상은 이듬해 <인류사회의 재건>으로 출판된 바 있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설립

그는 또 1975년 보스턴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 제4차 대회에서 '인간중심주의(human-centrism)에 입각한 새로운 가치질서 확립'을 촉구하고 보스턴 선언의 채택을 이끌어냈다. 보스턴선언문 취지에 따라 경희대학교는 1976년 3월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을 설립했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정관에도 나타나 있듯이, 물질문명에 경도돼 인간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현대 인류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산출함으로써 인류사회재건운동의 이론과 실천 활동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현실생활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오토피아 건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그 대표적인 활동은 국제학

술회의 개최와 <세계시민교과서> 등의 출판물 발행이었다.

1979년 10월 28일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로마클럽과 합동으로 개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내외 저명학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영식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의 전망과 오토피아를 향한 우리의 자세'를 역설했다.

연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무렵 그의 사상체계는 '오토피아 창조론'으로 수렴됐으며,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미 21세기 미래사회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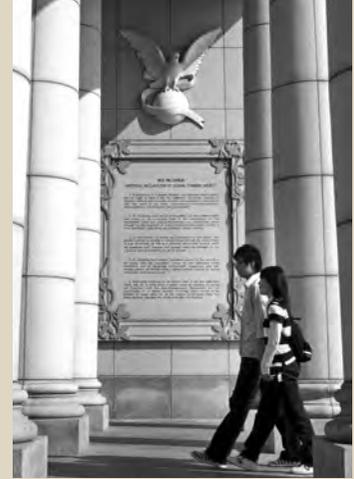
인류사회재건운동이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1998년 9월에 열린 세계평화의 날 1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였다. 회의 주제는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이었다. 조영식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문명의 발달 과정과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고찰한 뒤 인류사회 재건 방안을 제시했다.

연설 말미에서 그는 새천년을 위한 '지구공동사회 대헌장'(Magna Carta of Global Common Society) 제정을 제안했다. 하비에르 데 케야르 전 UN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했다. 조영식 박사는 선구적인 사상가였다.



1979년 10월 로마클럽과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합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새천년 지구공동사회 대헌장



1998년 9월 개최된 세계평화의날 17주년 기념식에서 조영식 박사는 '새천년을 위한 지구공동사회 대헌장' 제정을 제안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구공동사회 대헌장은 총 5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1. 우리 인류는 과학기술문명의 폐단에서 오는 인간 경시, 인간소외, 인간 부재의 사회를 바로잡아 인간이 역사문명의 주체가 되는 인간중심사회를 이룩한다.
2. 우리 인류는 오늘의 사회규범, 즉 정사선악(正邪善惡)의 가치판단에 있어 힘이 정의요 선이라는 자연규범에서 벗어나 문화사관에 입각한 문화규범사회를 이룩한다.
3. 우리 인류는 오늘의 시대정신인 민주화, 세계화, 인간화, 복지화에 따라 만민의 자유·평등과 대·소국의 동권(同權) 및 공영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사회를 이룩한다.
4. 우리 인류는 오늘의 배타적·패권적 국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사회를 이룩하고 종국에 가서는 지구촌에 더 붙여 사는 지구공동사회를 이룩한다.
5. 우리 인류는 새천년의 소명을 안고 팍스로마나(Pax Romana)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 만국의 주권이 함께 모여 구현하는 팍스유엔(Pax UN) 하의 평화사회를 이룩한다.

평화의 창조자 조영식 박사

조영식 박사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는 막대하다.

1981년 UN은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선포했다.

그 최초의 제안자가 조영식 박사였다.

1986년 1월 1일 세계평화의 해를 맞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상대 국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던 때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외쳤다.

“평화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고.

조영식 박사는 세계대학총장회 결성을 주도해

세계 석학들이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앞장섰다.

5대양 6대주에 조영식 박사의 평화의 외침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없다.

21세기는 참여민주주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견하고,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했다.

1999년 서울NGO세계대회를 개최한 것은 그의 또 다른 업적으로 꼽힌다.

그는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평화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었다.

핵전쟁 위기 막은 ‘세계평화의 날’

1981년 세계대학총장회 6차 대회에서 조영식 박사가 처음으로 제안
UN,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 세계사의 흐름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시켜



UN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하도록 제안한 조영식 박사는 UN 체제 아래서의 세계평화, 즉 ‘팍스 유엔(Pax UN)’ 이론을 개발했다.

2011년 9월 15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과 뉴욕 UN본부에서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가 동시 개최됐다. UNAI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고등교육을 통한 세계평화 구현’을 목표로 설립한 UN공보처 산하기구다. 이날 조인원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시민교육과 지구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기금 창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UNAI-경희 국제회의가 끝난 뒤 조인원 총장을 비롯한 뉴욕 파견단과 미국에 거주하는 경희대 동문들은 회의 성공을 축하하는 만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동문들은 조영식 박사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당시 그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뉴욕 파견단의 숙소는 UN본부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밀레니엄플라자호텔이었

다. 그곳은 조영식 박사와도 인연이 깊은 장소였다. 1981년 11월 30일 UN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 제정안이 승인되기까지 그는 그곳에서 3개월 이상 머물며 세계 각국의 대사와 UN 관계자들을 수없이 만나고 설득했다.

코스타리카 도움으로 UN에 안건 상정

1981년 7월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서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6차 대회가 열렸다. 그 회의에서 조영식 박사는 ‘UN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를 제정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세계대학총장회는 이를 받아들여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UN 회원국이 아니어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 조영식 박사는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 카라조 대통령의 도움을 얻어 안건을 제출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안건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했다. 조영식 박사는 회갑잔치까지 포기한 채 뉴욕에 체류하며 득표 운동을 하는 한편 ‘편지 캠페인’도 벌였다. 각국 대통령과 총리, 외무부장관, UN대사, 언론기관, 노벨상 수상자, 로마 교황 등 세계 지도급 인사에게 협력을 호소하며 발송한 편지는 무려 2,000통이 넘었다.

“30년보다도 길었던 3일”

세계평화의 날 제정안이 처음 상정된 날은 1981년 11월 27일이었다. 그러나 UN총회 이스마트 키타니 의장은 표결을 사흘 뒤로 미뤘다.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몇몇 국가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조영식 박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1981년 조영식 박사는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최초로 제안했다(맨 위). 1986년 UN본부 광장에서 세계평화의 해 기념 기조연설을 했다(위에서 두 번째). 그해 평화복지대학원에서 '평화의 횃불' 봉송회가 개최됐다(위에서 세 번째). 맨 아래는 경희대를 찾은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같았다.

“세계평화를 이루려고 해도 한 나라가 반대하면 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평화는 인류의 절대명제이기 때문에 반대가 단 한 나라뿐이라고 해도 표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표결이 미뤄진 사흘 동안 조영식 박사는 반대 의사를 밝힌 대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호소했다. 매일 밤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훗날 그는 “그 3일은 30년보다 더 긴 시간이었다”라고 회고했다.

결의안 처리 하루 전날 저녁 그는 근처 잡화점에서 칼을 한 자루 샀다. 속소로 돌아와 마음을 차분히 정리한 뒤 기도를 올리고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를 썼다.

1981년 11월 30일, 개회를 선언한 UN 총회 키타니 의장이 입을 열었다. “지난 금요일에 상정됐던 세계평화의 날과 해 안건을 다시 상정합니다. 아마도 이 평화안에 반대하는 나라는 없었지요?”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탕, 탕, 탕. 키타니 의장은 사회봉을 세 번 두드렸다. 조영식 박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UN총회는 1982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정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키타니 의장이 조영식 박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저는 세계 최고의 지도자와 석학들에게서 세계평화의 날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1,000통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힘이 그토록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세계평화의 해 제정 계기로 냉전 종식

UN은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지정했다. 그해 1월 1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상대국 국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동서 냉전과 핵전쟁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던 때 벌어진 기념비적 평화 이벤트였다.

‘평화의 창조자’ 조영식 박사는 현대사

의 흐름을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시킨 숨은 공로자였다. 1994년 경희대를 방문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경희가 주도해온 평화운동에 찬사를 보냈다. “만일 세계평화의 날과 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평화의 해 기념 ‘평화의 횃불’ 봉송

1986년 9월 16일 오전 9시 30분 UN본부 앞 광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대표자가 모인 가운데 세계평화의 해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조영식 박사는 ‘팍스 유엔(Pax UN)을 통한 세계평화의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곧이어 세계평화의 해 기념행사의 하나로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창립 40주년 ‘제1회 평화의 횃불 봉송 세계일주 대회’ 출발식이 거행됐다.

유니세프 총재에게 채화봉을 받아든 두 아동이 봉화대에서 횃불을 붙였다. 횃불은 UN사무총장 등의 손을 거쳐 조영식 박사에게로 건네졌다.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횃불을 흔들며 답례한 후 그는 이제부터 5대양 6대주를 달리게 될 첫 주자에게 횃불을 넘겼다.

그러나 한국은 횃불 봉송로에서 제외돼 있었다. UN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한 것은 1991년의 일이다. 조영식 박사는 “세계평화의 날을 제안한 한국을 어떻게 뺄 수 있느냐”며 봉송로 변경을 강력히 요청했다. 결국 UN은 한국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뉴욕 UN본부 광장에서 출발한 평화의 횃불은 11월 16일 한국에 도착했다. 횃불 주자들은 그날 오후 광릉의 평화복지대학원을 방문했다. 대학원생들도 도중에 그들과 합류해 교정까지 함께 달렸다. 조영식 박사는 임시로 만든 평화의 탑 봉화대에 횃불을 점화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 그는 그날의 감격을 학생들에게 전했다.

“내 손으로 UN 광장에서 제1주자에게 넘겨준 지 꼭 두 달 만에 이 뜻있는 횃불을 받게 되니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평화는 우리의 생명원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개선보다 귀한 것입니다.”

평화복지대학원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수상

1993년 '평화의 지도자' 양성해온 공로 인정



평화복지대학원은 1993년 유네스코로부터 평화교육상을 받았다. 교육기관 최초의 수상 기록이다.

세 계평화를 위한 경희의 실천적 의지는 평화복지대학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경기도 광릉에 평화복지대학원을 설립하면서 조영식 박사는 담화문을 통해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동양의 정신문명과 서구의 물질문명이 조화되고 동서 이념이 융화되고 하나의 세계공동사회가 이룩되어야 할 내일의 종합 문명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당위적인 인류의 요청적 미래사회를 건설하는 데 유익한 역군이 될 수 있는 국제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평화복지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음을 여기에 천명하는 바이다.”

UN사무총장·로마 교황 등 축하 메시지

평화복지대학원은 1983년 10월 29일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받았다. 개원식 겸 첫 입학식은 1984년 9월 25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열렸다. 이날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아르 UN사무총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국제사회 지도자와 스위스의 앙리 뒤낭연구소, 인도의 마하트마간디연구소 등 평화 관련 기관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평화복지대학원은 울창한 숲과 크낙새 서식지로 유명한 광릉수목원 부지 내에 자리 잡고 있다. 훗날 조영식 박사는 ‘어떻게 이런 곳에 교지를 마련했느냐’는 질문을 받곤 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 덕분이었다. 원래 그 자리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봉선사가 운영하던 중고등학교가 들어서 있었다. 1970년대 들어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학교를 옮기게 되자 봉선사 주지 이학수 스님은 인수자를 물색했다. 그는 춘원 이광수 선생의 8촌 동생으로, 해방 전 독립운동을 하다가 쫓기던 중 불교에 귀의했다.

개발 열풍이 불던 당시 외진 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조영식 박사는 1979년 11월 주저함 없이 땅을 사들였다.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숲속에 장차 평화복지대학원이 들어서게 될 줄은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문교부의 대학원 설립 인가 후 조영식 박사는 1주일 동안 광릉에 머물며 산에 올라 지세를 관찰하고 캠퍼스 건설 계획을 세웠다.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에서 살자, 자연에게 배우자’는 것이 그의 또 다른 교육철학이었다. 그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담하고 평화로운 광릉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

조영식 박사는 과감한 교육 투자를 결심했다. 우선 평화복지대학원의 모든 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파격적인 장학제도였다.

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자율과 협동 정신을 배우게 했다. 기숙사 이름은 삼정서헌(三正書軒)으로 지었다. ‘삼정’이란 정지(正知), 정판(正判), 정행(正行), 곧 ‘바르게 알고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실천한다’는 뜻이다. 어릴 때부터 부친에게 가르침을 받아 삶의 행동원칙으로 삼아온 것이 ‘정지, 정판, 정행’이었다.

이밖에도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교수 1명당 학생 3~4명의 비율로 엘리트 교육을 강화했다. 매 학기 세계 석학을 초빙해 교육의 질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교육과 실천의 융합을 위해 인턴십을 의무화했다. 국내는 물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인턴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그 경험을 토대로 국제무대에 진출하고 있다.

1990년 9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광릉캠퍼스 안에 ‘평화의 탑’이 세워졌다. 이 탑에는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개선(凱旋)은 전쟁에서 이긴 자의 당연한 귀환을 뜻한다. 민족 또는 국가 차원에서 개선은 영광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세계공동체 차원에서는 평가가 달라진다.

평화복지대학원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평화의 지도자를 양성해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 유네스코로부터 평화교육상을 수상했다. 개인이 아닌 교육기관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계평화대백과사전 세계 최초로 발간

1987년, 4년 간의 노력 끝에 초판 발행



초판 4권, 증보·개정판 8권 등 총 12권으로 이루어진 <세계평화대백과사전> 편찬은 경희의 큰 업적이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은 조영식 박사가 평화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평화운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깊이와 실천 의지를 겸비한 '평화의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필요가 평화복지대학원을 낳았다.

1983년 평화복지대학원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던 중 조영식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영어 공부에 영어사전이 필요하듯이 평화학을 교육하려면 그 방면의 사전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컬럼비아대학 도서관과 뉴욕시립도서관을 찾았으나 다른 모든 분야의 사전은 있어도 평화사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 인류가 평화 문제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려주는 사실이었다.

조영식 박사는 세계 최초의 평화 관련 백과사전을 편찬하기로 결심했다. 곧바로 간행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세계평화의 해인 1986년에 발행하기로 목표를 세웠

다. 그 같은 사명감 아래 스스로 편집인이 되고,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명예편집장으로 초빙했다. 세계대학총장회(IAUP) 부설기관으로 1979년 경희대에 설립된 국제평화연구소는 전 세계 저명 학자들과 접촉해 편집위원과 집필진을 구성했다.

350여 명의 세계 석학이 원고 집필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지내고 UN평화대학(산호세)을 설립한 로드리고 카라조 박사, 영국 브래드포드대학 평화연구소 오코넬 소장 등 40여 개국의 세계적 석학 350여 명, 그리고 세계식량기구(FAO)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가 원고 집필에 참여했다. 서문은 데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이 보내주었다.

사전 편찬 작업은 쉽지 않았다. 4년간의 노력 끝에 예정보다 1년 늦은 1987년 마침내 영문판 <세계평화대백과사전(World Encyclopedia of Peace)>이 세상에 나왔다. 출판은 영국의 퍼가몬프레스가 맡았다. 외국 출판사를 선정한 이유는 전 세

계에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전체 4권 중 1권과 2권에는 평화 이론과 철학, 전쟁과 전략에 대한 개념과 이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탁월한 평화이론가들에 대한 소개가 실렸다. 총 1,200면에 달하는 1권과 2권은 사실상 이 백과사전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3권에는 20세기에 체결된 평화 관련 국제조약, 평화운동 연표,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주요 논문이 실렸다. 4권에서는 참고문헌과 전 세계 연구기관들을 소개했다.

1999년 전 8권의 증보판 발행

<세계평화대백과사전>은 평화 연구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이론, 관련 자료를 수록해 평화학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초판이 발행된 지 약 10년간 국제 정세는 급격한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됐다. 냉전은 사라졌지만 동유럽은 인종간의 갈등으로 내전에 휩싸였다.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됐으며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평화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고 평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다.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했다.

조영식 박사는 <세계평화대백과사전> 증보·개정판 발간에 착수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작업은 1999년에 마무리됐다. <세계평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판은 전체 8권에 총 3,800면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물이었다. 본문에 해당하는 1권부터 5권까지는 320여 명의 저명 학자가 원고를 집필했다. 6권부터 8권까지 자료 중심의 부록 작업에는 세계 50개국의 학자 400여 명, 약 100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1999 서울NGO세계대회 개최

‘21세기 NGO 역할’ 주제로 세계평화 실천 방안 토론
전 세계 107개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1만 3,000명 참가



1999년 서울NGO세계대회에서는 전 세계 모든 분야의 NGO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서울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했다.

1990년대는 이른바 ‘환경의 시대’였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흔히 ‘리우회의’라고 불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였다.

전 세계 178개 국가의 대표와 약 7,800개의 민간 환경단체가 대회에 참가해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논의했다.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중요한 국제협약이 체결됐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 회의였다. 1997년 12월에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환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영식 박사는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세계평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1997년 부트로스-갈리 UN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자연환경 파괴를 막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환경이 파괴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왜 오늘의 세계 지도자들은 ‘사회평화’에 관심이 없는가?”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은 그 의견에 동감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조영식 박사는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1992년 리우에서 성공적인 환경회의를 가졌던 것처럼 UN 협력 하에 세계 NGO 단체들을 모두 모아놓고 서울에서 도덕 재건과 인간성 회복 회의를 갖고자 하니 협력해달라.”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은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후임으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그해 10월, 조영식 박사는 UN의 초청을 받아 UN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연설에서 그는 “세계평화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연

대할 때 지속적인 전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올 21세기에는 정부 못지않게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연설을 마친 후 조영식 박사는 새로 취임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NGO세계대회 개최에 관해 논의했다. UN은 경희대학교 주도하에 서울에서 NGO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승인했다.

“뜻을 세우고, 힘을 모아, 행동하자!”

1998년 6월 조영식 박사는 조인원 당시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등 대표단을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해 UN 공보처(DPI)와 UN NGO협의체(CoNGO) 대표들과 실무 협의를 갖게 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1999년 10월 서울에서 대회를 개최하며, 주제는 ‘21세기 NGO의 역할’로 정한다는 것이었다.

1999년 10월 10일 올림픽공원에서 ‘서



서울NGO세계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조영식 박사(위 사진). 아래는 2011년 UNAI-경희 국제학술회의.

서울NGO세계대회'가 개막됐다. “뜻을 세우고, 힘을 모아, 행동하자!”라는 구호 아래 전 세계 107개국에서 1,360개의 NGO를 대표하는 활동가와 시민 1만 3,000여 명이 참가했다.

“21세기는 NGO시대”

이 대회 이전에도 국제 규모의 NGO 대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일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의 NGO가 한자리에 모이기는 서울NGO세계대회가 최초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NGO는 이제 인류의 인권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있으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NGO와 같은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만들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앞서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 온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은 “서울NGO 세계대회는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민주적 공동체 건설, 여권 신장, 환경에 대한 의식 제고 등을 위해 전 인류가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 NGO의 역할’이라는 대회 주제는 세 가지 질문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보다 나은 시민사회의 구현을 위해 NGO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둘째, NGO 상호간의 차이와 이견을 극복하고 화합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세계시민사회의 구현을 위한 NGO의 연대와 결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대회 참가자들은 그동안 각 분야별 NGO 세계대회에서 논의된 의제와 결의 내용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것들의 지구적 실천 방안을 모색했

다. 6일 동안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은 1997년 취임사에서 “21세기에는 NGO의 시대가 온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NGO와 손잡고 함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영식 박사도 앞으로 세계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 NGO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UN이 서울NGO세계대회 개최를 승인한 것은 그 같은 공감 때문이었다.

‘서울밀레니엄선언문’ 채택

서울NGO세계대회 기조연설에서 조영식 박사는 ‘21세기는 참여민주주의의 시대’라고 규정된 뒤, 시민사회의 주역인 NGO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류가 더불어 살기 위한 지구공동사회의 새 규범으로 공동 목표(Common Goal), 공동 규범(Common Norm), 공동 과업(Common Task)의 새로운 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인류사회의 과업을 5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물질과 과학, 제도가 군림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존중되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둘째 약육강식하는 힘의 논리의 자연사관을 탈피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문화사관에 입각한 문화규범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셋째 패권적인 국가주의를 만민의 자유와 평등, 공영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사회로 이행시켜야 하며, 넷째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벽을 넘어 대소국의 동권(同權)과 공존을 이루는 지구공동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다섯째 팩스 유엔(Pax UN)을 중심으로 한 인류사회의 영원한 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그의 제안은 1998년 세계평화의 날 1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채택된 ‘지구공동사회 대헌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서울NGO세계대회에 참가한 전 세계 시민사회는 조영식 박사의 제안을 ‘서울밀레니엄선언문’에 반영했다. 서울NGO세계대회는 경희의 평화사상을 지구 시민사회가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평화의 대추제였다.

네오르네상스 운동과 경희의 미래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지구공동사회 건설이 목표
'지구적 존엄' 구현하는 경희의 미래비전으로 계승·발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정문(사진) 머리에는 'NEO RENAISSANC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네오르네상스 운동은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이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사색의 광장(Pensees Plaza)에는 2개의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다. 그 몸체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제2 르네상스 햇불 들어 온 누리 밝히는 등불 켜자.' 사색의 광장을 지구공동사회를 위한 제2 르네상스 운동의 발원지로 삼겠다는 조영식 박사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그는 2001년 9월 28일 국제캠퍼스 정문인 새천년기념탑 준공식에서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인류 화합과 평화의 바탕 위에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새천년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을 통하여 제2 르네상스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새로운 운동의 선도자 역

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영식 박사는 1979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6개 국어로 출판된 저서 <오토피아>에서 르네상스운동 이후 인류문명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며, 그 결과 오늘날 인간의 정신과 문화가 물질에 지배당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그가 제2 르네상스 운동을 제창한 것은 그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자"

조영식 박사는 "중세 말 정신문명의 한계점에서 (인본주의자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간성을 되찾자'고 외치고 나섰던 것처럼, 오늘 또다시 맞고 있는 물질문명의 한계점에서 인간 본래의 제 모습을 파악하고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

제2 르네상스 운동에 나서야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제2의 르네상스, 즉 네오르네상스는 정신세계가 물질세계를 단순히 합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바람직하고 실현이 가능한 당위적인 사회(오토피아)의 건설이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적인 인간사회, 지성이 넘치는 문화적인 복지사회, 그리고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지구공동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오르네상스 정신에는 교육자로서, 사상가로서, 평화운동가로서 생각하고 실천해온 조영식 박사의 전 생애가 담겨 있다. 그 정신은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고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겠다는 경희의 비전과 연결돼 있다.



文化世界의 創造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특별판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지난 2012년 2월 18일 91세를 일기로 영면하셨습니다. 조영식 박사는 1921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30세 때인 1951년 파란지 무신에서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하며 교육자의 길에 들어선 그는 교육을 통해 나라를 부흥시키고 세계평화 구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이념 아래 경희대학교를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미원 조영식 박사는 교육자이자 사상가, 평화운동가였습니다. 수십 권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그는 인간 중심의 문화세계 창조 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1950년대 중후반부터 농촌계몽운동, 장살기운동, 밝은사회운동, 인류사회 재건운동 등을 펼쳐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왔습니다. 1981년에는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하도록 UN에 제안했습니다. 핵전쟁의 위기를 막는 단초를 제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운 그 업적 하나만으로도 그의 이름은 세계평화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번호 뉴스레터는 경희의 살아있는 역사인 미원 조영식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특별판으로 꾸몄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특별판 2012년 2월 20일 발행 발행인 조인원 편집 발행 출판문화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06~8 이메일 khdsd3080@khu.ac.kr 홈페이지 www.khu.ac.kr